
삼국시대 고령양식 토기 검토

최 은 비*

목 차

- I. 머리말
 - II. 고령지역 출토 토기 분석
 - III. 타 지역 출토 고령양식 토기 검토
 - IV. 고령양식 토기 분포권 변화
 - V. 맺음말
-

*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본 원고는 필자의 석사학위논문(2016)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접수일: 2020.8.28. 심사완료일: 2020.11.5. 게재확정일: 2020.11.5.

국문요약

본고는 삼국시대 대가야의 중심지인 고령과 그 주변 지역에서 출토된 토기에 대해 검토한 글이다. 고령 주변 지역에서 출토된 고령계 토기를 검토하기에 앞서 고령지역 대형분 및 중소형분 등에서 출토된 총 16개 기종의 토기들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고령양식 토기의 특징 및 단계별 변화 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각 단계는 전체적인 토기 변화의 흐름에 따라 지산동 73·75호분을 대표로 하는 I 단계, 지산동 32~34호분을 대표로 하는 II 단계, 소형 석곽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III 단계와 IV 단계, 지산동 44호분을 대표로 하는 V 단계, 지산동 45호분을 대표로 하는 VI 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III장에서는 앞서 살펴 본 고령지역 출토 토기의 기종별 형식과 단계별 변화 양상을 기초로 하여 고령 주변지역에서 출토된 토기들을 검토하였다. 토기의 형태, 제작기법, 소성방식, 태토 등의 특징에 따라 ‘高靈産’, ‘忠實 高靈系’, ‘模倣 高靈系’ 토기로 분류하였으며 각 지역별 출토양상에 따라 해당 지역과 고령지역과의 관계도를 상·중·하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마지막 IV장에서는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고령양식 토기의 분포권 변화 양상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고령양식 토기가 고령지역을 중심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5세기 중엽, 고령양식 토기의 확산이 본격화되는 5세기 후반~6세기 초반, 고령양식 토기의 분포권이 축소되는 6세기 중엽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Ⅰ 주제어 Ⅰ

삼국시대, 고령, 토기, 대가야, 가야

I. 머리말

대가야는 아라가야, 소가야 등과 함께 후기가야를 주도했던 지역연맹체 중의 하나로, 고령지역을 중심으로 경상도와 전라도 일부 지역을 영유하고 있었다. 대략 5세기 전·중엽부터 성장하기 시작하며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초반의 시기에 국력이 최고점에 다다른다. 이는 주변 지역과의 교류 및 통합을 통해 이루어낸 성과로 판단되며 거대한 고층의 축조 및 주변 지역 지배층의 무덤에서 출토되는 다양한 기종의 고령양식 토기와 위세품 등을 통해서도 설명이 가능하다.

기존의 대가야와 관련된 연구 성과들은 고령 지산동 44·45호, 합천 옥전 M3호, 남원 월산리 M1-A호 등과 같은 대형분 출토품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분묘별 상대편년을 제시하거나 각 지역에서 출토된 고령양식 토기의 분포양상을 토대로 대가야의 권역을 설정하는 내용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기존의 대형분 출토품 중심의 검토에서 더 나아가 중·소형분 출토품 또한 대상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고령양식 토기의 특징을 더욱 명확히 파악하고, 형식 분류 및 시기별 전개 흐름에 있어서 안정성을 부여하고자 하였다. 또한 앞서 검토된 내용을 바탕으로 고령 외 지역에서 출토되는 고령양식 토기에 대해 살펴보았다. 각 지역 출토 고령양식 토기를 여러 가지 특징에 따라 분류하고, 지역별 출토 및 공반 양상을 검토하여 각 지역과 고령 중심지와의 관계도 및 시기별 토기 분포권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고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대상 자료의 시간적 범위는 5세기 중엽부터 대가야 멸망 시기인 562년, 6세기 중엽까지이다. 공간적으로는 II장에서는 고령, III장에서는 고령 외의 합천, 의령, 산청, 거창 등 고령양식 토기가 출토된 지역들을 검토 대상 범위로 삼았다.

II. 고령지역 출토 토기 분석

본 장에서는 고령 외의 지역에서 출토되는 고령양식 토기를 살펴보기에 앞서 고령지역양식 토기의 특징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고령지역 출토 토기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행하였다. 고령 지산동과 같은 대형분뿐만 아니라 본관동, 양전리, 도진리 등 중·소형분에서 출토된 토기 전체를 대상으로 검토하였다.

삼단각 이단투창고배, 일단 다투창고배, 유개식 장경호 등 개체 수가 안정적인 총 16개의

기종을 대상으로 기종별 속성 분석 및 형식 분류를 통해 고령지역양식 토기의 특징 및 전개 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한편, 개체 수는 적으나 고령지역을 중심으로 부장되며 고령지역만의 특징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기종들 또한 검토 대상에 포함하였다. 반면 타 지역 양식 토기의 특징을 갖고 있으면서 출토되는 양이 매우 적은 기종의 경우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1. 속성분석 및 형식분류

1) 삼단각 이단투창고배

대상 자료는 총 166점이며 토기 片을 제외한 완형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대부분 분묘 출토품이며 주변 수습품이 일부 포함되었다. 대각, 구연부, 대각단부 형태 등 총 5가지 속성을 추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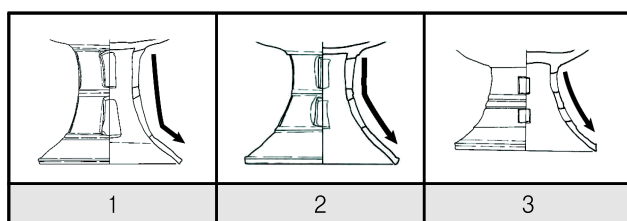


그림 1. 삼단각 이단투창고배 대각부 형태 분류

臺脚部 형태는 〈그림 1〉과 같이 대각 최하단에서 꺾여 외반하는 것(1), 중앙에서 꺾여 외반하는 것(2), 대각 상단에서 바로 외반하는 형태(3)로 세분된다.

口緣部 형태는 〈그림 2〉와 같이 총 4가지로 구분된다. 구연부가 얇고 길게 내경하며 말단부가 면 또는 약한 띠면을 이루고 뚜껑받이턱이 명확하게 돌출된 것(1), 구연부가 얇고 길게 내경하며 끝이 둥글고 뚜껑받이턱이 명확하게 돌출되지 않은 것(2), 구연부가 2단으로 꺾여 내경하며 길이가 짧고 두터우며 말단부가 강한 띠면을 이루는 것(3), 구연부가 짧고 두터우며 말단부가 뾰족하게 처리되며 뚜껑받이턱이 거의 축소되어 단상으로 이루어진 것(4)으로 세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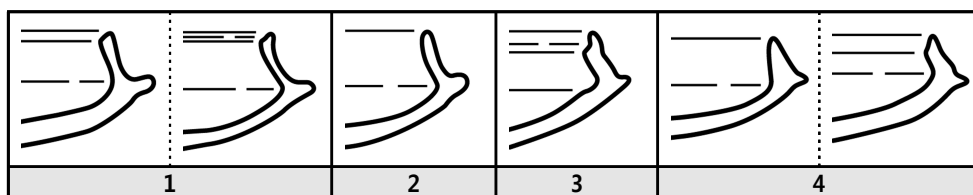


그림 2. 삼단각 이단투창고배 구연부 형태 분류

臺脚端部 형태는 <그림 3>과 같이 총 4가지로 구분된다. 단부 윗부분이 지면에 닿는 부분보다 돌출된 형태의 것(1), 돌출부가 없어 단면 형태가 거의 방형에 가까운 것(2), 말단부에 약한 홈을 가진 것(3), 대각이 길게 외반하며 말단부에 강한 띠면을 가지거나 지면에 닿은 부분이 더 돌출된 형태인 것(4)으로 세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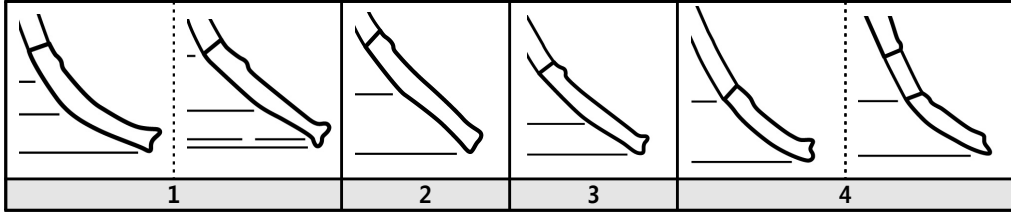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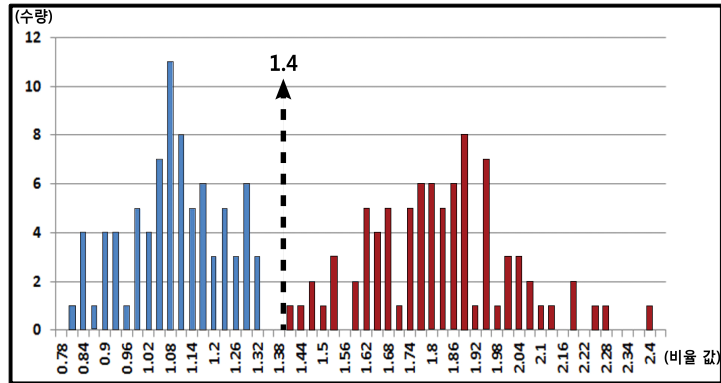


그림 3. 삼단각 이단투창고배 대각단부 형태 분류

투창의 형태는 가로 세로 비율이 1:2 이상인 장방형(1)과 1:2 이하인 방형(2)으로 세분하였다.

계측적 속성으로는 대각의 높이에 따른 대각 최소徑의 비율을 활용하였으며 1.4 이상인 것(1)과 미만인 것(2)으로 세분하였다. 수치가 클수록 대각이 높고 세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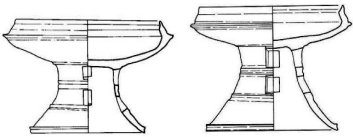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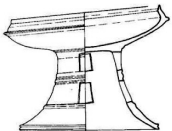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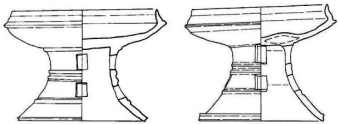
표 1. 삼단각 이단투창고배 대각고/각최소경 비율 빈도분포표



앞서 분류한 5가지 속성들을 조합하여 아래의 <표 2>와 같이 형식 분류를 행하였다. 대각과 구연부 형태에 따라 크게 6가지 상위 형식으로 대별하였으며 대각 말단부 형태 및 대각고/각최소경의 비율에 따라 하위 형식으로 세분하였다.

I 형식은 대각 형태가 최하단에서 꺾인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며 모두 장방형 투창을 가진다. 대각말단부 형태 및 대각고/각최소경의 비율에 따라 하위 형식으로 세분된다. I 형식 중 I a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다. I b는 모두 지산동 30호 주변 수습품에 해당된다. I c는 I a와 유사하나 대각 말단부 형태에서 차이를 보인다. II 형식은 대각 형태가 중앙에서부터 꺾여 외반하는 형태이다. 대각 말단부 형태 및 대각고/각최소경의 비율에 따라 하위 형식으로 세분된다.

표 2. 삼단각 이단투창고배 형식분류표

| 속성 형식 | 해당 유물 도면 | 대각 형태 | | | 구연 형태 | | | | 대각말단 형태 | | | | 대각고/ 각최소경 | | 수 량 |
|----------|---|----------|---|---|----------|---|---|---|------------|---|---|---|--------------|---|--------|
| | | 1 | 2 | 3 | 1 | 2 | 3 | 4 | 1 | 2 | 3 | 4 | 1 | 2 | |
| I |  | a | 1 | | 1 | | | | 1 | | | | 1 | | 34 |
| | | b | | | | | | | | | | | | 2 | 3 |
| | | c | | | | | | | | 2 | | | 1 | | 12 |
| II |  | a | | 2 | 1 | | | | 1 | | | | 1 | | 21 |
| | | b | | | | | | | | | | | | 2 | 7 |
| | | c | | | | | | | | 2 | | | 1 | | 2 |
| III |  | | | 2 | | 2 | | | 1 | | | | 1 | | 17 |
| IV |  | a | | 2 | | | 3 | | | | 3 | | | 2 | 23 |
| | | b | | | | | | | | | 4 | | | | 17 |
| V |  | | | 3 | | 3 | | | | | | 4 | | 2 | 7 |
| VI |  | a | | | | | | | | | 3 | | | | 5 |
| | | b | | 3 | | | | 4 | | | | 4 | | 2 | 18 |

IIa형식이 II형식의 다수를 차지한다. IIc의 경우 IIa 및 IIb와 주된 속성은 공유하나 전체적으로 다른 분위기를 가지며 수량도 적으므로 다른 지역 토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III형식은 I, II형식과 구연 말단부 형태에서 차이를 보인다. IV형식은 구연부가 2단으로 꺾여 내경하며 말단부가 ㅁ면을 이루는 것이 특징이다. 장방형과 방형 투창이 혼재하며

대각 말단부 형태에 따라 하위 형식으로 세분된다. V형식은 대각 형태가 최상단부에서 곡선적으로 바로 외반하는 점이 특징이며 타 형식에 비해 출토되는 양이 적다. VI형식은 대각은 V형식과 유사한 형태이나 구연부에서 차이를 보인다. 대각 말단부 형태에 따라 하위 형식으로 세분되며 방형 투창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2) 이단각 일단투창고배¹⁾

총 59점을 검토 대상으로 하였으며 분묘출토품이 대부분이며 일부 제사유구 출토품이 포함되어 있다. 모두 완형으로 대각말단부 형태 등 총 5가지 속성을 추출하였다.

구연부 형태는 <그림 4>와 같이 4가지로 구분된다. 구연 말단부가 편평한 면을 이루는 것(1), 둥근 것(2), 말단부 안쪽에 사면이 형성된 것(3), 2단으로 꺾여 내경하며 단부가 띠면을 이루고 두께가 두꺼운 것(4)으로 세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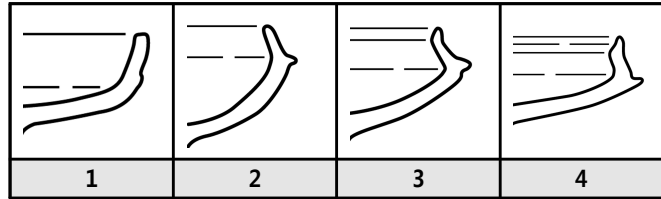


그림 4. 이단각 일단투창고배 구연부 형태 분류

뚜껑받이턱의 유무는 무개식의 것(1)과 유개식의 것(2)으로 세분된다.

투창의 형태는 가로 세로 비율이 1:3 이상인 세장방형인 것(1)과 그 이하인 장방형의 것(2)으로 세분된다.

대각부 형태는 <그림 5>와 같이 3가지로 구분된다. 대각이 약하게 외반하고 단면이 직사각형에 가까우며 말단부에 약한 홈을 가지는 것(1), 지면에 닿는 부분이 강하게 외반하며 말단부 위쪽에 작은 돌대가 부착되는 것(2), 대각이 크게 외반하고 말단부가 강한 띠면을 가지는 것(3)으로 세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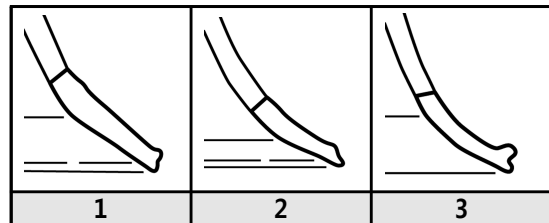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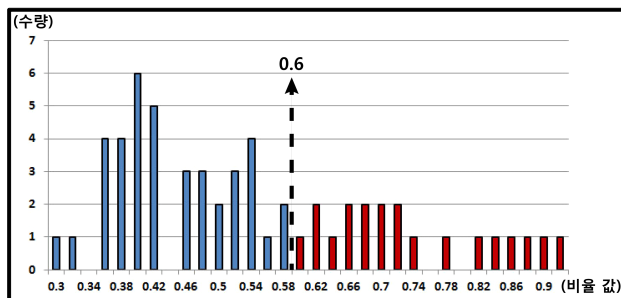
그림 5. 이단각 일단투창고배 대각 형태 분류

계측적 속성으로는 배신부 높이에 따른 대각 높이의 비율을 활용하였다. 0.6 미만인 것(1)과 그 이상인 것(2)으로 세분되며 수치가 높을수록 배신부와 대각의 높이가 비슷하다.

앞서 분류한 5가지 속성들을 조합하여 형식 분류를 행하면 아래의 <표 4>와 같다.

1) 대각의 투창이 5개 이상인 경우 다투창고배로 분류하였다.

표 3. 이단각 일단투창고배 배신고/대각고 비율 빈도분포표



I 형식은 뚜껑받이턱이 없는 무개식의 것으로 배신에 비해 대각이 높고 세장하며 세장방향 투창이 뚫린다. 구연부 형태에 따라 하위 형식으로 세분된다. II 형식은 뚜껑받이턱이 있는 유개식의 것으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다. 구연부 형태에 따라 말단부가 등

근 IIa와 말단부 내측에 사면이 있는 IIb로 세분된다. III형식은 II형식에 비해 대각 말단부가 외반하며 구연 말단부가 둥글게 처리된다. 여전히 배신에 비해 대각의 높이가 높다. IV형식은 장방향 투창을 가지며 배신과 대각 높이가 비슷하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표 4. 이단각 일단투창고배 형식분류표

| 속성 형식 | 해당 유물 도면 | | 뚜껑 받이 | | 투 창 | | 대각 말단 | | | 구연부 | | | | 수 량 |
|----------|----------|---|-------|---|-----|---|-------|---|---|-----|---|---|---|-----|
| | | | 1 | 2 | 1 | 2 | 1 | 2 | 3 | 1 | 2 | 3 | 4 | |
| I | | a | | | | | | | | 1 | | | | 3 |
| | | b | 1 | | 1 | | 1 | | | | 2 | | | 8 |
| II | | a | | | | | | | | 2 | | | | 7 |
| | | b | | 2 | 1 | | 1 | | | | | 3 | | 8 |
| III | | | | 2 | 1 | | | 2 | | | 2 | | | 11 |
| IV | | a | | | | | | | | 2 | | | | 7 |
| | | b | | 2 | | 2 | 1 | | | | | 3 | | 4 |
| | | c | | | | | | | | | | | 4 | 2 |
| V | | a | | | | | | | | 2 | | | | 5 |
| | | b | | 2 | | 2 | | 3 | | | | | 4 | 4 |

구연부 형태에 따라 말단부가 둥근 IVa, 구연단 내측에 사면이 있는 IVb, 구연부가 2단으로 꺾여 내경하며 단부 내측에 띠면을 형성하고 있는 IVc로 세분된다. V형식은 대각이 다른 형식에 비해 외반하는 정도가 심하며 말단부가 강한 띠면을 이루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구연부 형태에 따라 Va와 Vb로 세분된다. Va의 경우 주된 속성은 Vb와 공유하지만 배신부 및 대각 형태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지산동 44호 순장곽에서만 출토되는 점으로 보아 이 시기에 단기간만 제작한 형식으로 생각된다. Vb는 대각의 높이가 현저히 낮아지면서 전체적인 기고 또한 낮다.

3) 일단 다투창고배

총 21점의 분묘출토품을 대상으로 검토하였다. 대부분이 완형이며 속성 파악이 가능한 일부 파손품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구연부 형태, 투창의 수 등 5가지 속성을 추출하였다.

뚜껑받이턱의 유무에 따라 유개식의 것(1)과 무개식인 것(2)으로 구분하였다.

구연부 형태는 <그림 6>과 같이 말단부가 둥글고 내경하는 것(1), 말단부가 편평하거나 내측에 사면을 가지면서 직립 또는 외반하는 것(2), 말단부가 뾰족하며 구연 가까이에 부착된 돌대가 위를 향해 솟아 있는 형태의 것(3)으로 세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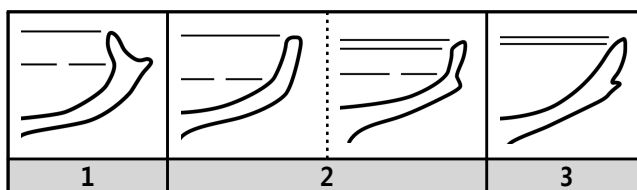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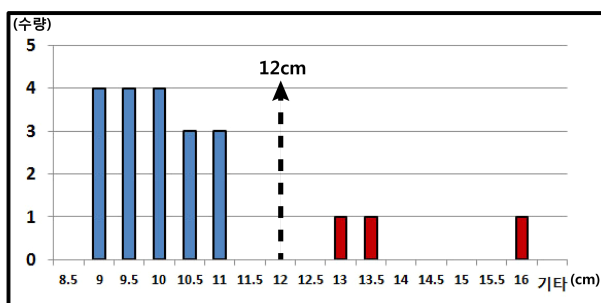


그림 6. 일단 다투창고배 구연부 형태 분류

투창의 수는 5개인 것(1)과 6개 이상인 것(2)으로 세분된다.

표 5. 일단 다투창고배 기고 빈도분포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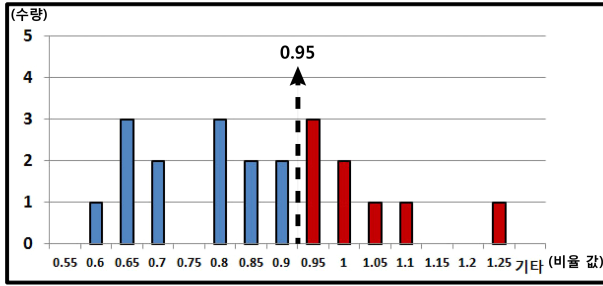
계측적 속성으로는 器高 및 대각부 上端徑에 대한 대각 높이의 비

율을 활용하였다. 기고의 경우 12cm 이상인 것(1)과 미만인 것(2)으로 세분된다. 대각 상단경에 대한 대각 높이 비율의 경우 0.95 미만인 것(1)과 이상인 것(2)으로 세분된다.

앞서 분류한 5가지 속성을 조합하여 <표 7>과 같이 형식 분류를 행하였다. 뚜껑받이턱의 유무, 구연부 형태에 따라 I~III형식으로 대별되며 투창의 수에 따라 하위 형식으로 세분된다.

I 형식은 뚜껑받이턱이 있는 유개식이며 구연부 말단이 둥글고 내경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기고 12cm 이상의 대형으로 대각이 비교적 세장하고 투창이 5개 정도 뚫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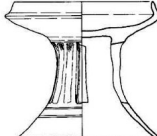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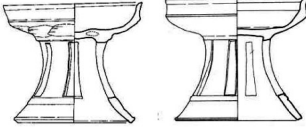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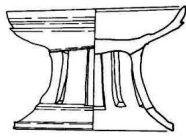
표 6. 일단 다투창고배 각상단경/대각고 빈도분포표



부가 뾰족하며 크게 외반하는 점이 특징이다. 구연부 바로 아래에 위로 솟아 있는 형태의 돌대가 부착된다. 대각의 폭이 넓고 기고가 12cm 이하로 낮다. 6개 이상의 투창이 뚫린다.

Ⅱ, Ⅲ형식에 비해 수량이 가장 적다. Ⅱ형식은 뚜껑받이턱이 없는 무개식으로 구연 말단부에 면이 형성되어 있는 점이 특징이다. 기고 12cm 이하의 소형이며 투창의 수에 따라 5개인 Ⅱa와 6개 이상인 Ⅱb로 세분된다. Ⅲ형식은 구연단

표 7. 일단 다투창고배 형식분류표

| 속성 형식 | 해당 유물 도면 | 뚜껑 턱 | | 구연부 | | | 각상단경 /각고 | | 투창 수 | | 기고 | | 수 량 |
|----------|---|---------|---|-----|---|---|-------------|---|---------|---|----|---|--------|
| | | 1 | 2 | 1 | 2 | 3 | 1 | 2 | 1 | 2 | 1 | 2 | |
| I |  | 1 | | 1 | | | 1 | | 1 | | 1 | 2 | 4 |
| II |  | a | | | | | | | 1 | | | | 2 |
| | | b | 2 | | 2 | | 1 | | | 2 | 2 | | 9 |
| III |  | | 2 | | | 3 | | 2 | | 2 | 2 | | 6 |

4) 도질 개

도질 개는 고령지역뿐만 아니라 전체 지역 분묘에서 가장 많이 출토되는 기종이며 가장 늦은 시기까지 지속적으로 사용된다. 완형의 분묘출토품을 중심으로 총 350점을 검토 대상으로 하였다. 드림턱의 유무, 꼭지 형태 등 4가지 속성을 추출하였다.

드림턱의 경우 있는 것(1)과 없는 것(2)으로 세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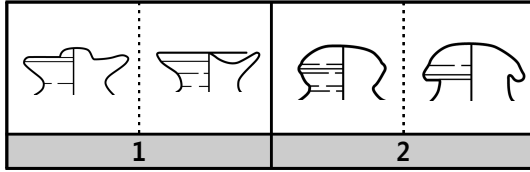


그림 7. 도질 蓋 꼭지 형태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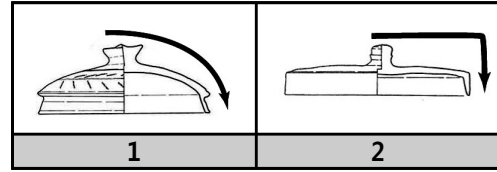


그림 8. 도질 蓋 신부 형태 분류

꼭지 형태는 <그림 7>과 같이 증산모 형태의 것(1)과 둥근 형태를 한 것(2)으로 세분된다.

身部 형태는 <그림 8>과 같이 꼭지에서 드림부까지 반원형에 가깝게 만곡한 것(1)과 직각으로 편평한 형태를 한 것(2)으로 세분된다.

드림단부 형태는 <그림 9>와 같이 말단부 안쪽에 사면이 있는 것(1)과 둥글게 처리된 것(2)으로 세분된다.

위와 같이 도질 개의 총 4가지 속성들을 조합하여 형식 분류를 행하면 아래의 <표 8>과 같다. 꼭지 및 신부 형태에 따라 4가지 형식으로 대별되며 드림단부 형태 및 드림턱의 유무에 따라 세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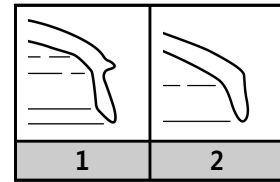


그림 9. 도질 蓋 드림단부 형태 분류

표 8. 도질 蓋 형식분류표

| 속성 형식 | 해당 유물 도면 | | 꼭지 형태 | | 신부 형태 | | 드림 단부 | | 드림턱 | | 수 량 |
|----------|----------|---|----------|---|----------|---|----------|---|-----|---|--------|
| | | | 1 | 2 | 1 | 2 | 1 | 2 | 1 | 2 | |
| I | | a | | | | | 1 | | 1 | | 33 |
| | | b | 1 | | 1 | | | 2 | | | 30 |
| | | c | | | | | | | 2 | | 31 |
| II | | a | | | | | 1 | | 1 | | 11 |
| | | b | 1 | | 2 | | 2 | | | | 33 |
| | | c | | | | | | | 2 | | 41 |
| III | | a | | | | | | 1 | | | 16 |
| | | b | | 2 | 1 | | 2 | | 2 | | 50 |
| IV | | a | | | | | | 1 | | | 14 |
| | | b | | 2 | 2 | | 2 | | 2 | | 91 |

I 형식은 증산모형 꼭지를 가지며 신부가 반원형인 것이다. 드림턱이 명확하게 돌출되며 드림단부 내측에 사면이 있는 I a, 드림단부가 둥글면서 드림턱이 있는 I b, 드림턱이 없는 I c로 세분된다. II 형식은 증산모형 꼭지에 신부가 편평한 형태이다. 드림단부 내측에 사면

이 있으면서 드림턱도 가지고 있는 형태가 IIa이며, 드림단부가 둥글면서 드림턱이 있는 것이 IIb, 드림턱이 없는 것이 IIc의 형식이다. III형식은 꼭지 및 드림단부가 둥글고 반원형의 신부를 가지는 것이 특징이다. 드림턱의 유무에 따라 IIIa와 IIIb로 세분된다. IV형식은 III형식과 마찬가지로 꼭지 및 드림단부가 둥글지만 신부가 편평한 형태인 것이다. III형식과 마찬가지로 드림턱의 유무에 따라 세분된다.

5) 연질 개

구경 15cm 이상의 완형인 연질 개 150점을 대상으로 검토하였다. 대부분 분묘출토품이며 일부 수습품이 포함되어 있다. 고령지역 내에서 출토되는 고리형 꼭지를 가진 연질 개의 경우 대부분 평저단경호와 세트를 이루어 출토되는 것이 특징이다. 신부 및 꼭지 형태 등 총 4가지 속성을 추출하였다.

身部 형태는 <그림 10>과 같이 어깨 부분에서 한번 꺾인 후 드림부로 이어지는 것(1)과 반타원형의 형태를 한 것(2)으로 세분된다.

꼭지 형태는 <그림 11>과 같이 단면 원형인 고리 모양의 것(1)과 증산모 형태인 것(2)으로 세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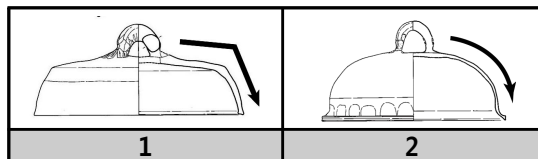


그림 10. 연질 蓋 신부 형태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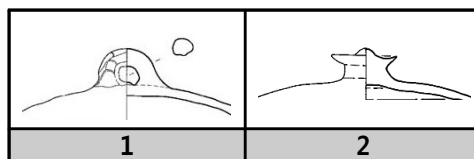


그림 11. 연질 蓋 꼭지 형태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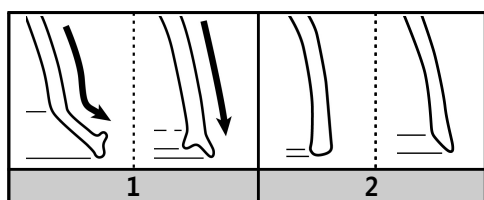


그림 12. 연질 蓋 드림단부 형태 분류

드림단부 형태는 <그림 12>와 같이 말단부에 홈이 있어凹面을 이루는 것(1)과 말단부가 둥글거나 내측에 사면을 가지는 것(2)으로 세분된다.

계측적 속성으로는 器高를 활용하였으며 기고가 6.5cm 이상인 것(1)과 미만인 것(2)으로 세분하였다.

위와 같이 총 4가지 속성에 따라 <표 10>과 같이 형식 분류를 행하였다. 개신부 및 꼭지 형태에 따라 4가지 형식으로 대별하였으며 드림단부 형태에 따라 세분된다.

I 형식은 가장 많은 수량이 해당되며 대부분 기고가 6.5cm 이상의 것이다. 신부 단면이 오각형에 가까우며 고리형 꼭지가 부착된다. 드림말단부 형태가 Ⅱ상을 이루는지 아닌지에 따라 Ia와 Ib로 세분된다. II형식은 I 형식과 신부 형태는 같으나 단추형 꼭지가 부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I 형식과 마찬가지로 드림단부 형태에 따라 세분된다. III형식은 반타원형의 신부 형태를 가지는 것으로 고리형 꼭지가 부착된다. 가장 적은 수량이 해당된다. IV형식은 III형식과 신부 형태는 같으나 단추형 꼭지가 부착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표 9. 연질 蓋 기고 빈도분포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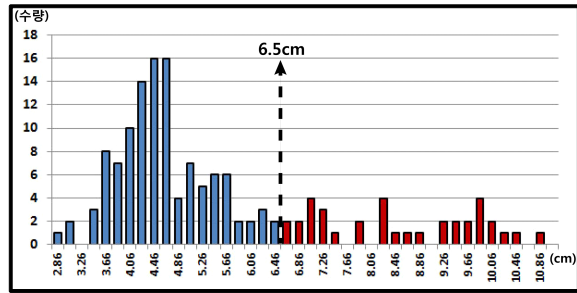


표 10. 연질 蓋 형식분류표

| 속성 형식 | 해당 유물 도면 | | 개신부 형태 | | 꼭지 형태 | | 드림 단부 | | 수 량 |
|----------|----------|--|-----------|---|----------|---|----------|---|--------|
| | | | 1 | 2 | 1 | 2 | 1 | 2 | |
| I | | | a | | | | 1 | | 30 |
| | | | b | 1 | 1 | | | 2 | 38 |
| II | | | a | | | | 1 | | 8 |
| | | | b | 1 | | 2 | | 2 | 29 |
| III | | | a | | | | 1 | | 7 |
| | | | b | | 2 | 1 | | 2 | 8 |
| IV | | | a | | | | 1 | | 8 |
| | | | b | | 2 | 2 | | 2 | 23 |

6) 배

도질 개와 세트를 이루며 고령지역 출토 토기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다. 대형분의 경우 고배가, 중소형분의 경우 고배 대신에 도질 개배가 세트로 부장되는 양상이 다수 관찰

된다. 검토 대상은 완형의 분묘 출토품으로 총 350점이며 총 2가지 속성을 추출하였다.

저부 형태는 <그림 13>과 같이 첨저인 것(1)과 원저인 것(2)으로 세분하였다.

구연부 형태는 <그림 14>와 같이 말단부가 뺨면을 이루거나 내측에 사면이 있으며 뚜껑받이턱이 확연하게 돌출된 것(1), 뚜껑받이턱이 약화된 것으로 말단부가 둥글면서 내경하는 것(2)과 직립하는 것(3)으로 세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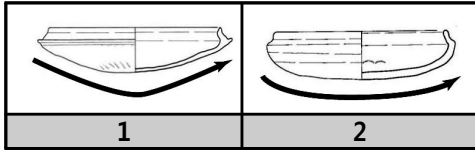


그림 13. 杯 저부 형태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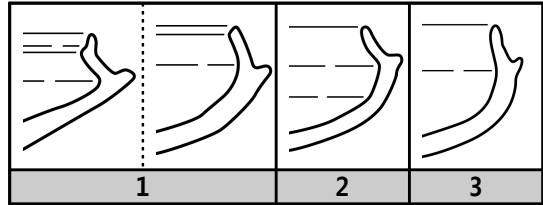


그림 14. 杯 구연부 형태 분류

표 11. 杯 형식분류표

| 속성 형식 | 해당 유물 도면 | 배신 형태 | | 구연부 형태 | | | 수 량 |
|----------|----------|----------|---|-----------|---|---|--------|
| | | 1 | 2 | 1 | 2 | 3 | |
| I | | 1 | | 1 | | | 43 |
| II | | 1 | | | 2 | | 32 |
| III | | 1 | | | | 3 | 16 |
| IV | | | 2 | 1 | | | 14 |
| V | | | 2 | | 2 | | 139 |
| VI | | | 2 | | | 3 | 106 |

위와 같이 2가지 속성의 조합을 통해 <표 11>과 같이 형식 분류가 만들어진다.

I 형식은 첨저이며 구연부가 얇고 길게 내경하는 것으로 뚜껑받이턱이 명확히 돌출된 형태이다. II 형식은 I 형식과 배신부 형태는 동일하나 구연부 말단이 둥글게 처리된다. III 형식은 구연말단부가 둥글며 직립하는 것이 특징이다. IV 형식은 I ~ III 형식과 달리 원저이며 구연부 말단 내측에 사면이 있거나 뺨면이 있는 것으로 가장 수량이 적다. V, VI 형식은 뚜껑받이턱이 거의 약화된 형태이며 원저이다. V 형식은 가장 많은 수량이 해당되며 구연말단부가 둥글게 내경한다. VI 형식은 V 형식 다음으로 많은 수량이 해당되며 구연말단부가 둥글게 직립하는 형태이다.

7) 평저단경호

경부 길이가 5cm 미만의 저부가 편평한 형태의 호이며 고령지역의 경우 대부분 고리형 꼭지가 부착된 연결 개와 세트를 이룬다. 완형의 분묘출토품을 대상으로 총 111점을 검토하였다. 경부 형태, 동최대경의 위치 등 3가지 속성을 추출하였다.

경부 형태는 <그림 15>와 같이 직선적으로 직립 또는 외반하는 것(1)과 곡선적으로 외반하는 것(2)으로 구분된다.

동최대경 위치는 상위에 있는 것(1)과 중하위에 위치하는 것(2)으로 구분된다.

경부 길이의 경우 2cm 이상인 것(1)과 미만인 것(2)으로 구분하였다.

속성 조합을 통해 <표 13>과 같이 형식 분류가 행해졌으며 총 6형식으로 나누어진다.

I 형식은 타 형식에 비해 견부가 부푼 형태로 경부가 직립 또는 외경하며 경부 길이가 2cm 이상으로 비교적 길다. 수량이 가장 적으며 지산동 35호에서만 출토된다. II 형식은 동최대경이 상위에 위치하며 경부가 내경 또는 직립하는 것으로 길이는 2cm 이하로 I 형식에 비해 짧다. 가장 많은 자료가 이 형식에 해당된다. III형식은 경부 형태 및 길이는 II 형식과 동일하나 동최대경이 중하위로 내려가 있다는 차이점을 보인다. IV형식은 경부 형태가 'C'자 형태로 외반하는 것이 특징이며 경부가 2cm 이상으로 길고 동최대경이 상위에 위치한다. V 형식은 IV형식과 외형은 유사하나 동최대경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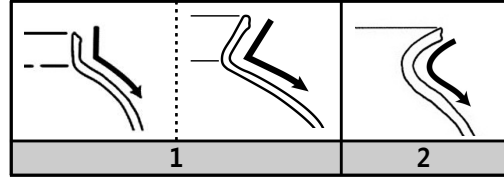


그림 15. 평저단경호 경부 형태 분류

표 12. 평저단경호 경부 길이 빈도분포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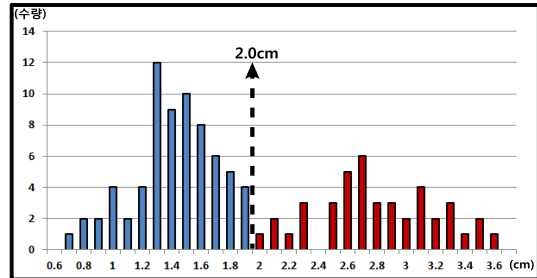


표 13. 평저단경호 형식분류표

| 속성 형식 | 해당 유물 도면 | 경부 형태 | | 경부 길이 | | 동최대경 | | 수량 |
|----------|----------|-------|---|-------|---|------|---|----|
| | | 1 | 2 | 1 | 2 | 1 | 2 | |
| I | | 1 | | 1 | | 1 | | 7 |
| II | | 1 | | | 2 | 1 | | 30 |
| III | | 1 | | | 2 | | 2 | 14 |
| IV | | | 2 | 1 | | 1 | | 22 |
| V | | | 2 | 1 | | | 2 | 12 |
| VI | | | 2 | | 2 | 1 | | 26 |

중하위로 내려간 형태이다. VI형식은 IV형식과 경부 외반도 및 동최대경의 위치는 동일하나 경부 길이가 2cm 이하로 짧은 것이 특징이다.

8) 유개식 장경호

유개식 장경호는 고령지역 내에서 개배 다음으로 다량 부장되는 기종으로 단추형 꼭지가 달린蓋와 세트를 이루는 경우가 많다. 검토 대상이 되는 자료는 기고 45cm 이하의 중·소형품으로 분묘출토품이 다수를 차지하고 일부 제사 유구 및 수습품이 포함된다. 완형의 총 287점을 분석하였다. 동최대경의 위치, 경부 형태 등 총 6가지 속성을 추출하였다.

동최대경의 위치는 상위에 있는 것(1)과 중하위에 위치하는 것(2)으로 구분된다.

경부 형태는 <그림 16>과 같이 구연부에서 동체부까지 수직으로 내려가는 것(1), 구연부에서 동체부까지 수직으로 내려가나 점차 폭이 좁아지는 형태의 것(2), 구연부에서 폭이 점차 축소되는 형태로 이어지다가 중앙에서 한번 꺾인 후 동체부로 연결되는 형태의 것(3), 'C'자와 같이 오목한 형태를 한 것(4)으로 구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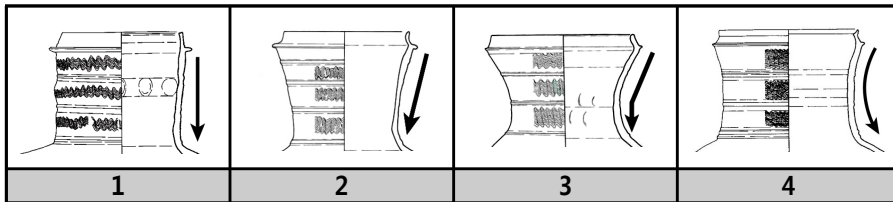


그림 16. 유개식장경호 경부 형태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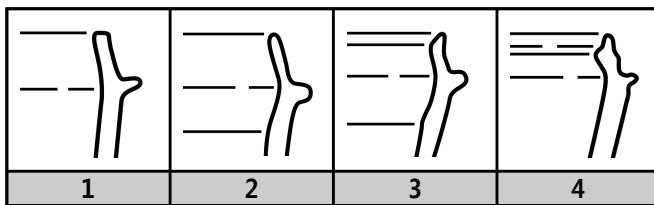


그림 17. 유개식장경호 구연부 형태 분류

구연부 형태는 <그림 17>과 같이 말단부가 편평한 면을 이루며 내경 또는 직립하는 것(1), 말단부가 둥글며 내경하는 것(2), 길이가 짧고 두터우며 내경하면

서 말단부 내측에 사면을 가지는 것(3)과 말단부 내측에 띠면을 가지는 것(4)으로 구분된다.

경부에서 동체부로 연결되는 부분인 頸基部에 위치한 돌대의 수는 1조 이하인 것(1)과 2조 이상인 것(2)으로 구분된다.

계측적 속성으로는 동체부 높이에 대한 경부 높이의 비율, 경기부 폭에 따른 동최대경의 비율을 활용하였다. 전자의 경우 비율이 2 초과인 것(1), 1.2 이상 2 이하인 것(2), 1.2 미만인

것(3)으로 구분하였으며 후자의 경우 비율이 0.63 이하인 것(1)과 0.64 이상인 것(2)으로 구분하였다.

위와 같이 6가지의 속성들을 통해 <표 16>의 형식 분류를 행하였다. 총 7개의 형식으로 대별되며 구연부 형태, 동체부 높이에 따른 경부 높이 비율 등 세부 속성에 따라 하위 형식으로 세분 가능하다.

I 형식은 동최대경이 상위에 있으며 경부가 직선적인 원통형의 것이다. 경부에 비해 동체부 높이가 높으며 경기부에 돌대가 1조 돌아간다. 구연부 형태에 따라 말단부가 편평한 면을 가지는 Ia와 둥글

게 내경하는 Ib로 세분된다. II형식은 I 형식과 달리 경부 형태가 단면상 역제형을 한 것이 특징이다. 구연단부 형태에 따라 하위 형식으로 세분된다. IIa형식의 경우 구연단부가 평면을 이루는 것으로 토기 사이즈 자체가 크다. 동체에 비해 경부 높이가 매우 짧고 경기부 지름에 비해 동최대경이 두 배 정도 넓은 점이 특징이다. 이른 시기 대형분에서만 소량 출토되어 주목된다. III형식은 I, II형식과 달리 경부 형태가 중위에서 한단 꺾여서 동체부로 연결되는 것이 특징이다. 구연부 말단 형태에 따라 둥근 IIIa와 구연부 내측에 사면이 있는 IIIb로 세분된다. IV형식은 동최대경이 상위에 있으면서 경부가 'C'자 형태를 한 것이다. 가장 많은 수량이 이 형식에 해당된다. 경기부 지름과 동최대경의 사이즈가 비슷하며 구연부 형태에 따라 세분 가능하다. V형식은 가장 적은 수량이 해당되는 형식으로 동최대경이 중하위에 위치하며 원통형의 경부를 가지는 것이다. VI형식은 V형식과 동일하게 동최대경이 중하위에 위치하나 경부가 역제형에 가까운 것이다. VI형식 또한 구연부 형태에 따라 하위 형식으로 세분된다. VII형식은 동최대경이 중하위에 위치하며 경부는 'C'자 형태를 한 것이다. 대부분 경기부에 2조의 돌대가 돌아가며 경기부 지름과 동체부 지름의 차이가 적다. 경부와 동체부 높이 또한 비슷하다. 구연부 형태에 따라 하위 형식으로 세분된다.

표 14. 유개식장경호 동체고/경부고 비율 빈도분포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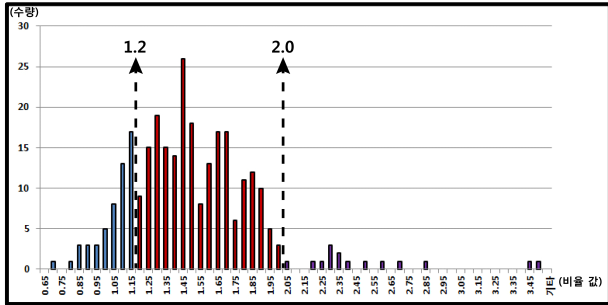


표 15. 유개식장경호 경기부경/동최대경 비율 빈도분포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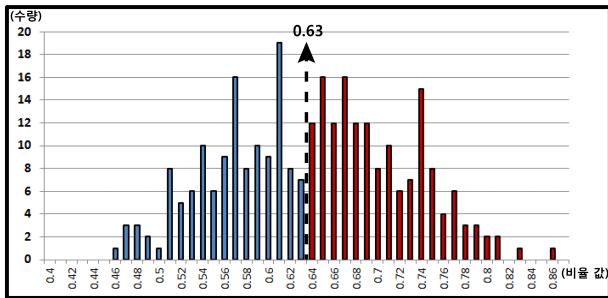


표 16. 유개식장경호 형식분류표

| 속성 형식 | 해당 유물 도면 | 동최 대경 | | 경부 형태 | | | | 구연단부 형태 | | | | 경기부 돌대 | | 수 량 |
|----------|----------|----------|---|-------|---|---|---|---------|---|---|---|-----------|---|--------|
| | | 1 | 2 | 1 | 2 | 3 | 4 | 1 | 2 | 3 | 4 | 1 | 2 | |
| I | | a | | | | | | 1 | | | | | | 19 |
| | | b | 1 | | 1 | | | | | 2 | | | 1 | 20 |
| II | | a | | | | | | 1 | | | | | | 9 |
| | | b | 1 | | 2 | | | | | 2 | | | 1 | 38 |
| | | c | | | | | | | | | 3 | | | 14 |
| III | | a | 1 | | | 3 | | | | 2 | | | 1 | 14 |
| | | b | | | | | | | | | 3 | | | 7 |
| IV | | a | | | | | | 1 | | | | | | 9 |
| | | b | | | | | | | 2 | | | | 1 | 33 |
| | | c | 1 | | | | 4 | | | | 3 | | | 19 |
| | | d | | | | | | | | | | 4 | 2 | 28 |
| V | | | 2 | 1 | | | | | 2 | | | | 1 | 6 |
| VI | | a | | | | | | | 2 | | | | 1 | 12 |
| | | b | | 2 | | 2 | | | | | 3 | | | 10 |
| | | c | | | | | | | | | | 4 | 2 | 8 |
| VII | | a | | | | | | | 2 | | | | | 10 |
| | | b | | | | | | | | | 3 | | | 8 |
| | | c | | 2 | | | 4 | | | | | 4 | 2 | 23 |

9) 무개식 장경호

검토 대상이 된 자료는 총 162점이며 모두 완형의 분묘출토품이다. 본고에서는 기고 35cm 이하의 것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동최대경의 위치, 경부 형태 등 총 4가지 속성을 추출하였다.

동최대경의 위치에 따라 상위에 있는 것(1)과 중하위에 있는 것(2)으로 구분하였다.

경부 형태는 곡선적으로 외반하는 것(1)과 직선적으로 벌어지는 것(2)으로 세분된다.

구연부 형태는 <그림 18>과 같이 4가지로 구분된다. 구연부가 약하게 외반하며 말단부가 띠면을 이루는 것(1), 구연부가 외반하면서 말단부가 띠면을 이루나 (1)에 비해 말단 상부가 더 돌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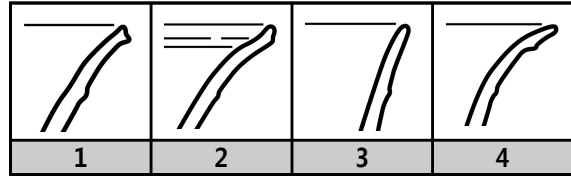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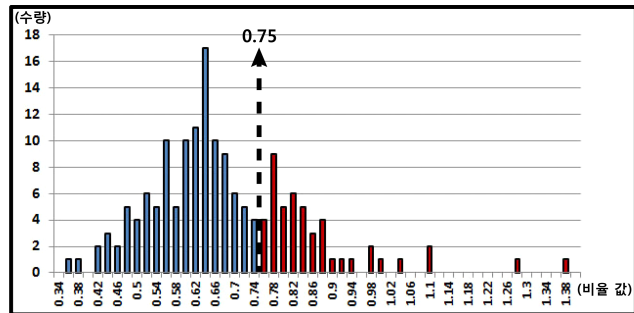


그림 18. 무개식장경호 구연부 형태 분류

된 것(2), 구연 말단부가 둥글게 처리된 것(3), 구연 말단부가 둥글고 외반하며 하단부에 1조의 돌대가 돌아가는 것(4)으로 세분된다.

계측적 속성으로는 경부 높이에 따른 동체부 높이의 비율을 활용하였다. 수치가 0.75 미만인 것(1)과 이상인 것(2)으로 세분된다.

표 17. 무개식장경호 경부고/동체고 비율 빈도분포표



앞서 추출한 4가지 명목적·계측적 속성들을 조합하여 형식분류를 행하였으며 그 결과 아래의 <표 18>과 같은 형식 분류를 마련하였다. 동최대경의 위치 및 경부 형태에 따라 4가지 형식으로 대별되며 경부 높이에 따른 동체 높이 등에 따라 하위 형식으로 세분된다.

I 형식은 동최대경이 상위에 있으며 경부가 곡선적으로 외반하는 것으로 경부 높이에 비해 동체부 높이가 높다. 토기의 사이즈가 타 형식에 비해 대형이며 가장 많은 수량이 이 형식에 해당된다. 구연부 형태에 따라 하위 형식으로 세분된다. II형식은 I 형식과 동최대경 위치, 경부 형태는 동일하나 경부와 동체부

표 18. 무개식장경호 형식분류표

| 속성 형식 | 해당 유물 도면 | 동최대경 | | 경부 형태 | | 경부고/동체고 | | 구연부 형태 | | | | 수량 |
|----------|----------|------|---|-------|---|---------|---|--------|---|---|---|----|
| | | 1 | 2 | 1 | 2 | 1 | 2 | 1 | 2 | 3 | 4 | |
| I | | a | | | | | | 1 | | | | 54 |
| | | b | | 1 | | 1 | | | 2 | | | 17 |
| | | c | 1 | | | | 1 | | | 3 | | 19 |
| | | d | | | | | | | | | 4 | 11 |
| II | | a | | | | | | 1 | | | | 26 |
| | | b | 1 | | 1 | | | | | 3 | | 5 |
| | | c | | | | | | | | | 4 | 3 |
| III | | 1 | | | 2 | 1 | | | | 3 | | 9 |
| IV | | a | | | | 1 | | | | | | 7 |
| | | b | 2 | 1 | | | 1 | | 2 | | | 11 |

높이 비율이 비슷하다는 점이 다르다. II형식 또한 구연부 형태에 따라 세분된다. III형식은 경부가 직선적으로 외반하는 것이 특징이며 경부에 비해 동체부 높이가 높다. 가장 적은 수량이 이 형식에 해당된다. IV형식은 경부가 곡선적으로 외반하나 동최대경이 중하위에 위치한 점이 특징이다. 경부 높이에 따른 동체부 높이의 비율에 따라 하위 형식으로 세분된다.

10) 발형기대

대상 자료는 총 133점으로 모두 완형이다. 분묘 출토품이 대부분이나 일부 수습품과 제사유구 출토품이 포함되어 있다. 발부 및 구연부 형태 등 총 6가지 속성을 추출하였다.

발부 형태는 <그림 19>와 같이 단면상 반원형인 것(1)과 'S'자 상으로 외반하는 형태의 것(2), 직선적으로 벌어진 형태의 것(3)으로 구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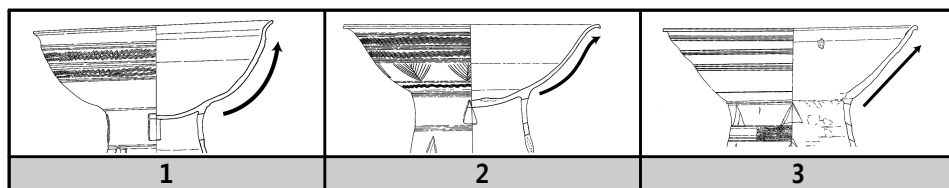


그림 19. 발형기대 鉢部 형태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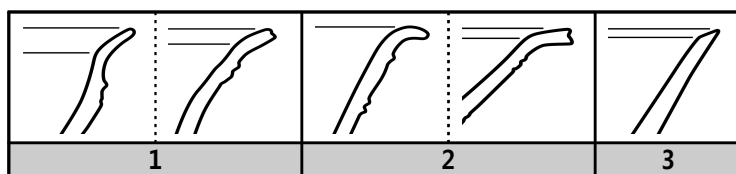


그림 20. 발형기대 구연부 형태 분류

구연부 형태는 <그림 20>과 같이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구연부가 약하게 외반하며 말단부가 둥글거나 약한 홈을

가지는 것(1), 구연부가 강하게 외반하며 말단부가 둥글거나 강한 홈을 가져 凹면의 형태를 한 것(2), 구연부가 직선적으로 뺀 형태로 말단부 내측에 사면이 있는 것(3)으로 세분된다.

발부에 시문된 문양의 경우 <그림 21>과 같이 (밀집)파상문(1), 격자문 또는 삼각 집선문(2), 점열문(3), 송엽문(4), 무문(5)으로 세분된다.

대각에 설치된 투창의 경우 2단 이상으로 뚫린 것(1)과 1단만 뚫린 것(2)으로 구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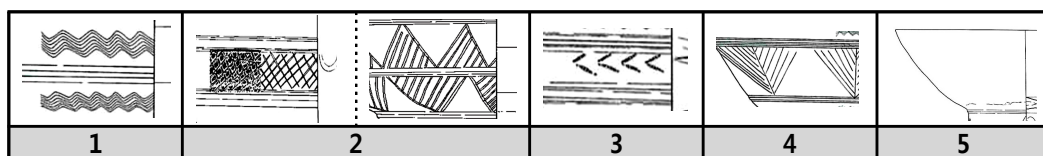


그림 21. 발형기대 鉢部 문양 분류

투창 형태는 (이중)아치형(1), 방형 계열(2), 삼각형(3)으로 세분된다.

대각 말단부 형태는 <그림 23>과 같이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대각이 길게 외반하며 말단부 상단에 약한 돌대가 있거나 둥글게 처리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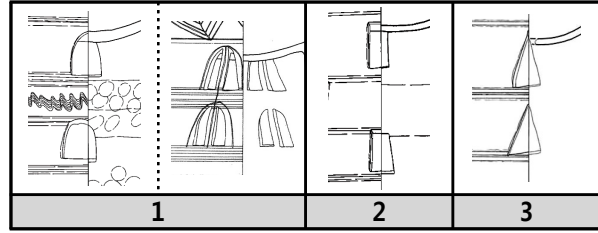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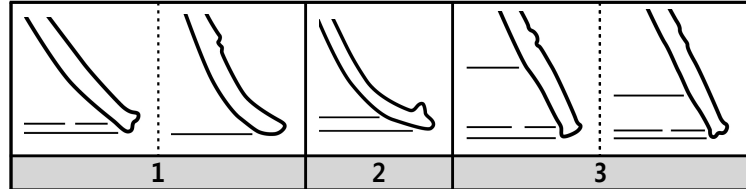


그림 22. 발형기대 투창 형태 분류

(1), 대각 외반 정도가 심하며 말단부 상단에 돌대가 강하게 돌출되어 있는 형태의 것(2), 대각이 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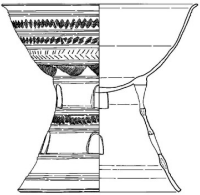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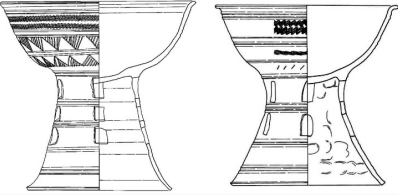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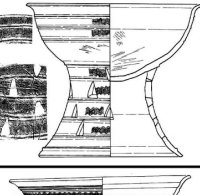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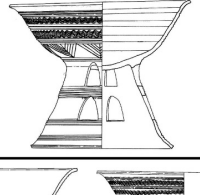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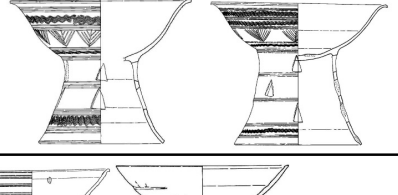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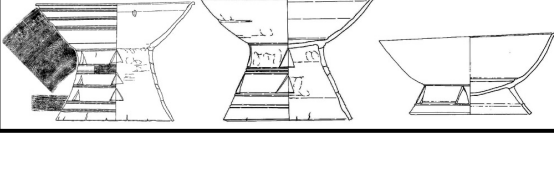
선적으로 벌어지며 말단부가 편평한 면 또는 뒹뒹을 이루는 것(3)으로 세분된다.

그림 23. 발형기대 대각말단부 형태 분류

앞의 총 6가지 속성들을 기준으로 <표 19>와 같이 형식 분류를 행하였다. 발부 및 투창 형태에 따라 6가지 형식으로 대별되며 구연부 형태 및 투창 단수 등에 따라 하위 형식으로 세분된다.

I 형식은 발부 형태가 반원형에 가깝고 아치형 투창이 2단 이상 뚫린 형태이다. 구연부가 약하게 외반한다. 가장 많은 수량이 이 형식에 해당되나 지산동 73·75호 출토품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발부에 시문되는 문양은 파상문 단독 또는 파상문+점열문 구성이 가장 많다. II 형식은 반원형의 발부를 가지며 방형 투창이 뚫리는 것이 특징이다. 구연부 형태에 따라 IIa와 IIb로 세분된다. IIa의 경우 발부에 격자문이 시문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쾌빈동 1호에서만 확인되는 것으로 이른 시기에 단기간 유행한 것으로 생각된다. IIb는 구연부가 바깥으로 완전히 꺾여서 외반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발부에 다양한 문양이 시문되며 송엽문 또한 확인된다. III형식은 삼각형의 투창을 가지는 점이 특징이다. 가장 적은 수량이 이 형식에 해당되며 대부분 대각 말단부-1 속성과 조합되며 일부 쾌빈동 출토품만이 대각말단부-2 속성과 조합된다. IV형식은 발부 형태가 'S'자 상으로 외반하며 (이중)아치형 투창이 뚫리는 점이 특징이다. 이중아치형 투창의 경우 지산동 35호에서만 확인되는 점이 주목된다. 구연부는 약하게 외반한다. 발부 문양의 경우 파상문 단독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일부 삼각집선문 또는 송엽문과 함께 구성된다. V형식은 'S'자 상으로 외반하는 발부 형태에 삼각형 투창이 대각에 2단 이상 설치되는 것이 특징이다. 구연부 형태에 따라 하위 형식으로 세분된다. VI형식은 발부가 직선적으로 벌어지며 삼각형 투창이 뚫린다. 구연부 형태 및 투창 단수에 따라 하위 형식으로 세분된다.

표 19. 발형기대 형식분류표

| 속성 형식 | 해당 유물 도면 | 발부 형태 | | | 투창 형태 | | | 구연부 형태 | | | 투창 단수 | | 수량 |
|----------|---|----------|---|---|----------|---|---|-----------|---|---|----------|---|----|
| | | 1 | 2 | 3 | 1 | 2 | 3 | 1 | 2 | 3 | 1 | 2 | |
| I |  | 1 | | | 1 | | | 1 | | | 1 | | 40 |
| II |  | a | | | | | | 1 | | | | | 10 |
| | | b | 1 | | | 2 | | | | 2 | 1 | | 5 |
| III |  | 1 | | | | | 3 | 1 | | | 1 | | 8 |
| IV |  | | 2 | | 1 | | | 1 | | | 1 | | 17 |
| V |  | a | | | | | | 1 | | | | | 15 |
| | | b | 2 | | | 3 | | | 2 | | 1 | | 13 |
| VI |  | a | | | 3 | | 3 | | 2 | | 1 | | 18 |
| | | b | | | | | | | | | | | 3 |
| | | c | | | | | | | 3 | | 2 | | 4 |

11) 저평통형기대

주로 고령과 그 주변 가까운 지역에서 보이는 독특한 형태의 기대이다. 기고가 낮고 간략화된 형태의 통형기대로 수부 깊이가 낮고 수부 아래에 통부가 없이 바로 대각으로 이어진다. 총 24점을 대상으로 검토하였으며 모두 완형의 분묘출토품이다. 수부 형태, 대각부 구성 등 총 4가지 속성을 추출하였다.

수부 형태는 <그림 24>와 같이 곡선적으로 외반하는 것(1)과 ‘ㄱ’자에 가까운 형태로 꺾여 벌어지는 것(2)으로 세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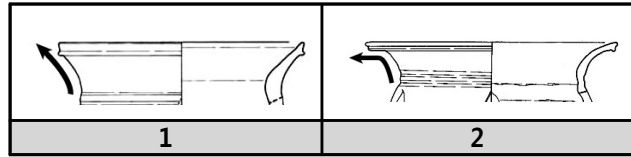


그림 24. 저평통형기대 수부 형태 분류

대각부는 돌대에 의해 3단 이상으로 구획되는 것(1)과 2단 이하로 구획되는 것(2)으로 세분된다.

대각의 형태는 <그림 25>와 같이 수부에서 대각 말단부까지 곡선적으로 외반하는 것(1), ‘S’자 상으로 굴곡되게 외반하는 것(2), 약하게 굴곡되거나 직선적으로 곧게 뻗은 형태의 것(3)으로 세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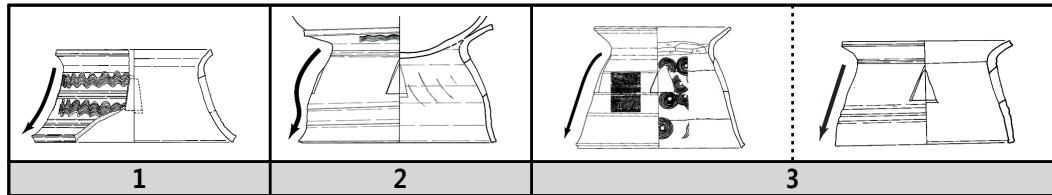


그림 25. 저평통형기대 대각 형태 분류

투창의 형태는 방형 계열(1)과 삼각형(2)으로 세분된다.

위와 같이 4가지 속성을 기준으로 <표 20>과 같이 형식분류를 행하였다. 대각부 구성 및 형태에 따라 5가지 형식으로 대별되며 수부 및 투창 형태에 따라 하위 형식으로 세분된다.

표 20. 저평통형기대 형식분류표

| 속성 형식 | 해당 유물 도면 | 대각 구성 | | 대각 형태 | | | 수부 형태 | | 투창 형태 | | 수 량 |
|----------|----------|----------|---|----------|---|---|----------|---|----------|---|--------|
| | | 1 | 2 | 1 | 2 | 3 | 1 | 2 | 1 | 2 | |
| I | | 1 | | 1 | | | 1 | | 1 | | 3 |
| | | | | | | | 2 | 1 | 2 | | |
| II | | a | 1 | | 2 | | 1 | | 2 | | 2 |
| | | b | | | | | 2 | 1 | | | 1 |
| III | | a | | | | 3 | 1 | | 2 | | 3 |
| | | b | | | | | | 1 | | | 2 |
| IV | | a | | 2 | 2 | | 1 | | 2 | | 3 |
| | | b | | | | | 2 | | | | 4 |
| V | | | 2 | | | 3 | 1 | | 2 | | 6 |

I 형식은 대각 형태가 곡선적으로 외반하며 돌대에 의해 대각이 3단 이상 구획된다. II 형식은 대각 형태가 'S'자 상으로 외반하는 것으로 수부가 약하게 외반하고 삼각형 투창이 뚫리는 IIa와 수부가 완전히 꺾여 외반하며 방형 투창이 뚫리는 IIb로 세분된다. III형식은 대각 형태가 약간 곡선적으로 벌어지거나 직선적으로 뺨은 형태이다. 투창 형태에 따라 삼각형인 IIIa와 방형인 IIIb로 세분된다. IV형식은 대각 구성이 돌대에 의해 2단 이하로 구획되며 대각이 'S'자 상으로 외반하며 삼각형 투창이 뚫린다. 수부 형태에 따라 하위 형식으로 세분된다. V형식은 대각이 직선적으로 뺨어 있으며 돌대에 의해 2단 이하로 구획되고 삼각형 투창이 뚫린다.

12) 파수부호

고사리형의 손잡이가 부착된 호이다. 대부분이 동체부에 돌대가 부착되며 돌대 사이에 파상문이 시문된다. 본고에서 검토한 대상 자료는 속성 추출이 가능한 파손품 일부를 포함하여 총 79점이다. 대부분이 분묘출토품에 해당된다. 동최대경의 위치, 동체부 돌대 수 등 총 3가지 속성을 추출하였다.

동최대경 위치에 따라 상위에 있는 것(1)과 중하위에 있는 것(2)으로 세분된다.

동체부 돌대 수의 경우 돌대가 없거나 1조만 있는 것(1)과 돌대가 2-3조 정도 돌아가는 것(2)으로 세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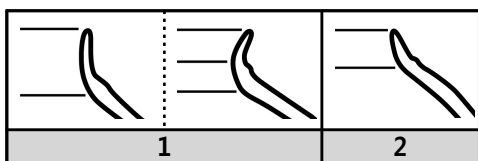


그림 26. 파수부호 구연부 형태 분류

구연부 형태는 <그림 26>과 같이 직립 또는 외반하는 것(1), 내경하는 것(2)으로 구분된다.

위의 총 3가지 속성들을 기준으로 형식 분류를 행한 것이 <표 21>이다. 동최대경 위치

및 동체부 돌대 수에 따라 3형식으로 대별하였으며 구연부 형태에 따라 하위 형식으로 세분하였다.

I 형식은 동최대경이 상위에 위치하며 동체부에 돌대가 없거나 1조만 돌아가는 것이다. 구연부 형태에 따라 하위 형식으로 세분된다. II형식은 동체부에 돌대 수가 2조 돌아가는 점이 특징이며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다. 동최대경은

표 21. 파수부호 형식분류표

| 속성 형식 | 해당 유물 도면 | 동최대경 | | 동체부 돌대수 | | 구연부 형태 | | 수량 |
|----------|----------|------|---|---------|---|--------|---|----|
| | | 1 | 2 | 1 | 2 | 1 | 2 | |
| I | | a | 1 | 1 | | 1 | | 28 |
| | | b | | | | | 2 | 3 |
| II | | a | 1 | | 2 | 1 | | 27 |
| | | b | | | | | 2 | 9 |
| III | | | 2 | | 2 | | 2 | 12 |

여전히 상위에 위치한다. Ⅲ형식은 동최대경이 중하위에 위치하는 점이 특징이다. 구연부가 내경하고 동체부에 돌대가 2조 돌아간다.

13) 대부파수부호

파수부호에 대각이 부착된 형태의 것이다. 파손품을 포함하여 총 42점을 검토하였으며 모두 분묘출토품에 해당된다. 동최대경 위치, 파수 형태 등 총 4가지 속성을 추출하였다.

동최대경의 위치에 따라 상위에 있는 것(1)과 중하위에 있는 것(2)으로 구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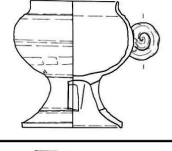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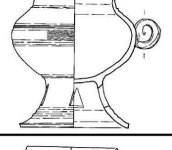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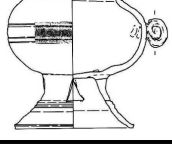
파수 형태는 단면 원형의 橋狀인 것(1)과 고사리형(2)으로 구분된다.

대각에 뚫린 투창의 경우 삼각형이 아닌 것(1)과 삼각형인 것(2)으로 세분하였다.

동체부 돌대의 경우 1조만 있거나 돌대가 설치되지 않은 것(1)과 2-3조 정도 설치된 것(2)으로 구분된다.

위의 총 4가지 속성을 토대로 <표 22>와 같이 형식분류를 행하였다. I형식은 동최대경이 상위에 있으면서 교상 파수를 가지는 것으로 장방형 투창이 대각에 뚫린다. II형식은 I형식과 달리 고사리형 파수가 부착된 것으로 동체부에 돌대가 없거나 1조 있는 것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대각에는 장방형 투창이 뚫린다. Ⅲ형식은 대각의 투창이 삼각형인 것으로 동최대경은 여전히 상위에 위치한다. 동체부에 돌대가 2조 설치되며 사이에 파상문이 시문된다. IV형식은 동최대경이 중하위에 위치하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고사리형 파수가 부착되며 대각에는 삼각형 투창이 뚫린다. 동체부에 부착된 파수의 크기가 II, Ⅲ형식에 비해 작다. 전체 형식 중 가장 많은 수가 이 형식에 해당된다.

표 22. 대부파수부호 형식분류표

| 속성 형식 | 해당 유물 도면 | 동최대경 | | 파수 형태 | | 투창 형태 | | 수량 |
|----------|---|------|---|-------|---|-------|---|----|
| | | 1 | 2 | 1 | 2 | 1 | 2 | |
| I |  | 1 | | 1 | | 1 | | 7 |
| II |  | 1 | | | 2 | 1 | | 4 |
| III |  | 1 | | | 2 | | 2 | 8 |
| IV |  | | 2 | | 2 | | 2 | 23 |

14) 양이부완

파손품을 포함하여 총 14점을 검토하였으며 모두 분묘출토품에 해당된다. 동체부 문양대의 수, 구연단부 형태 등 3가지 속성을 추출하였다.

동체부 문양대 수는 문양대가 2줄인 것(1), 3줄인 것(2), 문양이 시문되지 않은 것(3)으로 세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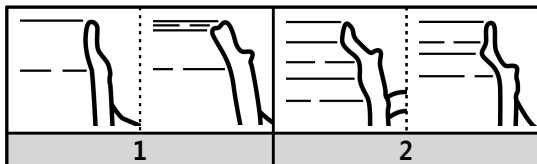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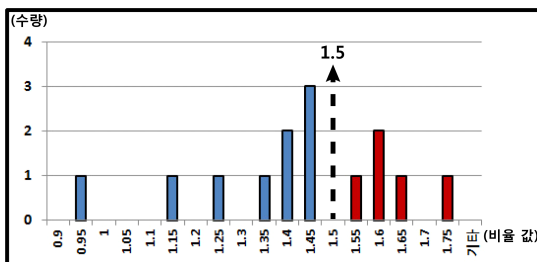


그림 27. 양이부완 구연단부 형태 분류

구연부 형태는 <그림 27>과 같이 말단부가 둥글거나 내측에 약한 홈이 있어凹면을 가지는 것(1), 말단부 내측에 사면이 있거나 이러한 사면이 길에 움푹 들어간 형태를 한 것(2)으로 세분된다.

표 23. 양이부완 구경/기고 비율 빈도분포표



계측적 속성으로는 구경에 대한 높이의 비율을 활용하였다. 수치가 높을수록 동체부 형태가 가로로 긴 직사각형에 가까워진다. 비율에 따라 1.5 미만인 것(1)과 그 이상인 것(2)으로 세분된다.

위와 같이 3가지 속성을 통하여 <표 24>와 같이 형식 분류를 행하였다. 동체

<표 24> 양이부완 형식분류표

| 속성 형식 | 해당 유물 도면 | 동체부 문양대수 | | | 구연부 형태 | | 구경/ 기고 | | 수 량 |
|----------|----------|-------------|---|---|-----------|---|-----------|---|--------|
| | | 1 | 2 | 3 | 1 | 2 | 1 | 2 | |
| I | | 1 | | | 1 | | 1 | | 2 |
| II | | 1 | | | | 2 | | 2 | 2 |
| IIIa | | a | | | | | 1 | | 5 |
| IIIb | | b | 2 | | | 2 | | 2 | 3 |
| IV | | | | 3 | 1 | | 1 | | 2 |

부 문양대의 수, 구연부 형태에 따라 4개 형식으로 대별되며 구경에 따른 높이의 비율에 따라 하위 형식으로 세분된다.

I 형식은 동체부가 돌대에 의해 3부위로 구분되고 사이에 2단의 파상문 문양대가 시문된다. 구연부는 내경 또는 직립하며 말단부가 둥글다. 구경과

기고 비율이 비슷하여 동체부 형태가 단면상 방형에 가깝다. II 형식은 I 형식과 마찬가지로 동체부 문양대는 2단으로 구성되나 구연부 형태에서 차이를 보인다. 구연말단부 내측이 면

을 이루며 구경에 비해 기고가 낮아 동체부 형태가 전체적으로 납작하다. Ⅲ형식은 동체부 문양대 수가 3단인 것이 특징이다. 구연부 형태는 Ⅱ형식과 동일하다. 구경에 따른 기고의 비율에 따라 하위 형식으로 세분된다. Ⅳ형식은 동체부에 문양대가 없는 점이 특징이다. 동체부 형태가 단면상 장방형에 가깝고 구연말단부가 둥글게 처리된다. 수량이 적고 양전동 석곽 출토품만이 해당되므로 단기간 양전동 내에서 유행한 형식으로 판단된다.

15) 우각형파수부배

단면 원형의 뿔과 같은 형태의 파수가 부착된 杯이다. 파수 형태는 끝이 말려 있거나 곧게 뻗어있다. 동체부 바닥이 평저이며 재질은 도질 혹은 연질로 다양하다. 검토 대상이 된 자료는 총 16점으로 일부 파손품을 포함하고 있다. 동체부 형태 및 파수 부착 위치와 같이 총 2가지 속성을 추출하였다.

동체부 형태는 <그림 28>과 같이 단면 역제형을 한 것(1), 단면상 타원형을 한 것(2), 가로로 긴 직사각형인 것(3)으로 세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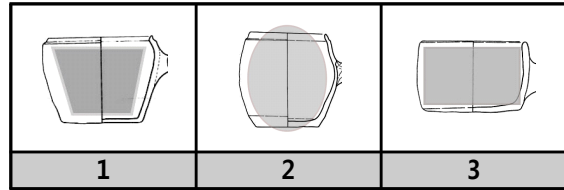


그림 28. 우각형파수부배 동체부 형태 분류

파수의 부착 위치는 동체부 상위에 붙는 것(1)과 중하위에 붙는 것(2)으로 세분된다.

표 25. 우각형파수부배 형식분류

위의 2가지 속성을 통해 형식 분류를 행하면 <표 25>가 만들어진다. 동체부 형태를 기준으로 3형식으로 대별하며 파수 위치에 따라 하위 형식으로 세분된다.

| 속성 형식 | 해당 유물 도면 | 동체부 형태 | | | 파수 위치 | | 수 량 |
|----------|----------|-----------|---|---|----------|---|--------|
| | | 1 | 2 | 3 | 1 | 2 | |
| Ⅰ | | a | | | 1 | | 4 |
| | | b | | | | 2 | 6 |
| Ⅱ | | | 2 | | 1 | | 2 |
| Ⅲ | | | | 3 | 2 | | 4 |

I 형식은 동체부가 역제형에 가까운 것으로 가장 많은 수량이 이 형식에 해당된다. 파수가 동체부 상위에 부착되

는 Ia와 중하위에 부착되는 Ib로 세분된다. II형식은 동체부가 단면 타원형에 가까운 것으로 동체부 상위에 파수가 부착된다. III형식은 동체부 단면이 방형에 가까우며 파수가 동체부 중하위에 부착되며 다른 형식에 비해 파수 길이가 길고 크기 또한 크다.

16) 표주박형 토기

평저의 소형 호와 같은 기종으로 표주박 모양과 비슷하여 ‘표주박형 토기’로 불린다. 통형기대 및 저평통형기대와 마찬가지로 고령과 고령 주변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유의 기종으로 판단된다. 검토대상은 총 40점으로 모두 완형이며 분묘출토품에 일부 제사유구 출토품이 포함된다. 구연부 형태 및 동최대경 위치에 해당하는 2가지 속성을 추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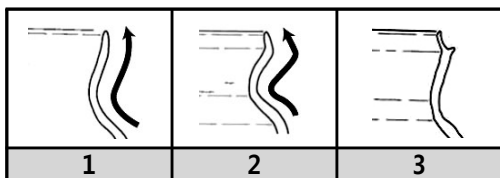


그림 29. 표주박형토기 구연부 형태 분류

구연부 형태는 <그림 29>와 같이 총 3가지로 구분된다. 구연 말단부가 둥글게 처리되며 곡선적으로 외반하거나 직립하는 것(1), 구연부가 외반하다가 구연부 근처에서 ‘ㄱ’자로 꺾이며 내경하는 것(2), 구연 말단부가 내경하며 구연부 근처에 돌대가 부착된 것(3)으로 세분된다.

동최대경의 위치는 상위(1), 중위(2), 하위(3)의 3가지로 세분된다.

표 26. 표주박형토기 형식분류표

| 속성 형식 | 해당 유물 도면 | 구연 형태 | | | 동최대경 | | | 수량 |
|----------|----------|-------|---|---|------|---|---|----|
| | | 1 | 2 | 3 | 1 | 2 | 3 | |
| I | | a | | | 1 | | | 5 |
| | | b | 1 | | | 2 | | 7 |
| | | c | | | | | 3 | 5 |
| II | | a | | 2 | 1 | | | 14 |
| | | b | | | | 2 | | 6 |
| III | | | | 3 | | 2 | | 3 |

위의 두 가지 속성을 조합하여 <표 26>과 같이 형식분류를 행하였다. 구연부 형태에 따라 3가지 형식으로 대별되며 동최대경의 위치에 따라 하위 형식으로 세분된다.

I 형식은 구연부가 둥글게 외반하거나 직립하는 형태의 것으로 동최대경 위치에 따라 하위 형식으로 세분된다. II 형식은 구연부가 ‘ㄱ’자 형태로 꺾이며 내경하는 형태로 가장 많은 수가 이 형식에 속한다. 동최대

2. 전개양상

지금까지 고령지역 출토 토기를 대상으로 속성 분석 및 형식 분류를 행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전체적인 토기의 전개 양상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고령양식 토기가 출토된 유구 전체를 대상으로 순서배열 하였으며 토기 기종의 생성 및 소멸, 기종별 각 型式²⁾의

생성과 소멸을 기준으로 각 단계를 구분하였다. <표 27>은 이러한 단계별 각 型式의 존속 기간을 간단하게 표로써 정리한 것이며 해당 단계에 잔존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점선으로 표현해두었다.

<표 27> 단계별 토기 型式에 따른 존속 기간

| 단계 | 이단투창고배 | 일단투창고배 | 다투창고배 | 유개장경호 | 무개장경호 | 평저단경호 | 발형기대 | 파수부호 | 대부호 | 도질개 | 연질개 | 배 | 우각형파배 | 양이부완 | 표주박 | 저평통형기대 |
|-----|------------------|------------------|------------------|------------------|------------------|------------------|------------------|------------------|------------------|------------------|------------------|------------------|------------------|------------------|------------------|------------------|
| 기대 | I II III IV V VI | I II III IV V VI | I II III IV V VI | I II III IV V VI | I II III IV V VI | I II III IV V VI | I II III IV V VI | I II III IV V VI | I II III IV V VI | I II III IV V VI | I II III IV V VI | I II III IV V VI | I II III IV V VI | I II III IV V VI | I II III IV V VI | I II III IV V VI |
| I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II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III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IV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V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VI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I 단계

I 단계는 지산동 73~75호, 35, 30호가 대표적이다. 우각형파수부배, 양이부완, 저평통형기대를 제외한 다양한 기종들이 골고루 부장되며 각 기종별 여러 형식이 동시에 출현하는 양상을 보인다. 주요 기종별 특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삼단각 이단투창고배는 기고가 높으며 대각이 세장하다. 구연 말단부가 평면 또는 둥근 형태이다. 대각 말단부는 상부가 뾰족하게 돌출된 형태가 일반적이다. 일단투창고배는 무개식 세장방형 투창의 형태가 먼저 등장하고 이후 유개식이 출현한다. 구연 말단부가 면을 이루거나 둥근 형태이다. 다투창고배는 기고가 높은 유개식의 것과 무개식이면서 구연부 내측에 斜面이 있는 형식이 동시에 등장한다. 5개 이상의 투창이 뚫리며 비교적 대각이 세장하다.

유개식 장경호는 동최대경이 상위에 있으며 경부 및 구연단부 형태가 다양하다. 경부에서 동체부로 이어지는 부분에는 대부분 돌대가 1조 돌아간다. 무개식 장경호 또한 동최대경이 상위에 있으며 경부 형태가 곡선적으로 외반하며 구연 말단부 형태는 다양하다. 평저 단경호는 I 단계 후반부에 출현한다. 경부 길이가 길게 직립하며 견부가 두드러진다.

발형기대는 발부 형태가 반원형이며 구연부가 크게 외반하지 않는 것이 다수를 차지한다. 투창의 형태는 이중아치형, 방형 등 다양하다. 발부 형태가 ‘S’자 상으로 외반하는 경우 아

2) 각 기종별 型式을 분류할 때 시기적으로 이르고 시간성을 많이 포함하는 속성들을 우선적으로 배열하여 구분하였으므로 그 존속 기간에는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I→VII로의 형식 변천 방향이 상정된다.

치형, 삼각형 투창과 조합되는 양상이 관찰된다.

파수부호는 동최대경이 상위에 위치하며 동체부에 1~2조의 돌대가 돌아간다. 구연말단부가 둥글며 직립하거나 외반한다. 대부파수부호 또한 동최대경이 상위에 있으며 僑狀把手 및 고사리형 파수가 공존하며 방형 및 삼각형 투창이 대각에 설치된다. 蓋杯는 I 단계부터 다양한 형식이 등장하며 공존한다.³⁾ 표주박형 토기는 I 단계 늦은 시기에 출현하며 동최대경이 상위에 위치하고 구연부 근처에 돌대가 없다.

2) II 단계

II 단계는 지산동 32~34호가 대표적이다. 대부분의 기종이 전 단계의 형식을 유지하며 우각형파수부배와 저평통형기대가 새롭게 등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우각형파수부배는 동체부가 역제형이며 중상위에 파수가 부착된다. 저평통형기대는 돌대에 의해 대각이 3단 이상으로 구획되며 대각 형태가 곡선적으로 외반하거나 ‘S’자 상으로 벌어진다.

한편, 일단투창고배는 유개식이며 대각에 방형 투창이 뚫린 형식이 새롭게 등장한다. 평저단경호의 경우 경부가 두드러지고 경부가 2cm 이상의 직립 또는 외경하는 형식이 이 단계부터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3) III 단계

III 단계는 소형 석곽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가장 많은 양의 유구가 이 단계에 해당된다. II 단계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기종에서 이전 단계의 형식이 지속적으로 보여지며 여기에 새로운 형식들이 더해지는 양상이 관찰된다.

이 단계에서는 양이부완이 새롭게 등장하는데, 동체부 문양대의 수가 2~3줄이며 구연부 형태가 다양하다. 유개장경호는 기존의 형식에 새로운 형식들이 더해지며 동최대경의 위치 및 경부와 동체부 사이의 돌대 수가 1~2조로 다양해진다. 무개장경호 또한 유사한 양상이 관찰된다. 평저단경호의 경우 경부가 2cm 이하로 짧고 ‘C’자 상으로 외반하는 형식이 새롭게 나타난다.

발형기대는 반원형의 발부에 삼각형 투창이 뚫리며 구연부가 약하게 외반하는 형식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반면, 발부가 직선적으로 벌어지며 삼각형 투창이 뚫리는 새로운 형식이 등

3) 개배와 연질 개는 이른 시기에 속하는 유구 출토품과 늦은 시기에 조성된 유구 출토품의 형태 차이가 거의 없다. 일부 외형적인 차이가 있더라도 이른 시기부터 꾸준히 다양한 형식이 공존되는 양상이 지속된다. 타 기종에 비해 시기에 따른 형태 변화가 두드러지지 않는 기종으로 판단된다.

장한다. 발부에 시문되는 문양 구성은 다양해지나 이중 아치형 투창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우각형파수부배 및 저평통형기대의 경우에도 기존의 형식이 지속됨과 동시에 새로운 형식이 등장하여 공존한다. 한편, 다투창고배는 전 단계의 유개식이 사라지고 무개식만 부장된다.

4) IV단계

IV단계는 III단계와 마찬가지로 소형 석곽들이 이 단계에 주로 해당된다. 기종별로 이전 단계에 보이던 형식들이 일부 소멸하기 시작하는 양상이 관찰된다.

우선, 삼단각 이단투창고배는 세장한 대각에 구연말단부가 면을 이루는 형태가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이단각 일단투창고배 또한 무개식의 형태 및 세장한 대각에 세장방형 투창이 뚫리는 형식이 더 이상 부장되지 않는다.

유개장경호는 동최대경이 상위에 있고 경부 단면이 방형 또는 역제형을 띠는 형태가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무개장경호의 경우에도 동최대경이 중위·중하위로 내려가며 경부와 동체부 높이가 비슷해진다. 파수부호는 동최대경이 상위에 있고 동체부에 돌대가 1조 돌아가는 형식이 소멸하며 동최대경이 중위에 있고 구연부가 내경하는 형식이 새롭게 출현한다. 대부파수부호에서는 교상파수 및 장방형 투창의 요소가 사라진다.

발형기대의 경우 거의 모든 형식이 소멸하고 발부형태가 직선적이며 삼각형 투창이 대각에 뚫린 형태만이 지속된다. 이전까지 토기 외면에 다양하게 시문되던 문양들이 파상문 단독 혹은 파상문+송엽문 형식 등으로 단순화된다. 저평통형기대의 경우 대각이 곡선적으로 외반하는 형식 및 대각이 3단으로 구획되고 ‘S’자 상으로 벌어지는 형식이 소멸한다. 우각형파수부배의 경우 동체부가 방형에 가깝고 하위에 파수가 붙는 형식이 새롭게 등장한다.

5) V단계

V단계는 지산동 44호가 대표적이다. III·IV단계와 마찬가지로 각 기종별 일부 형식들이 소멸 및 새롭게 등장한다. 삼단각 이단투창고배의 경우 구연부가 2단으로 꺾여 내경하여 말단부가 凹상을 이루는 형태가 새롭게 등장한다. 이단각 일단투창고배는 방형 투창이 뚫리며 대각 말단부가 凹면을 이루는 형식이 새롭게 등장한다.

유개장경호는 III형식이 소멸하며 무개장경호는 II, III형식이 더 이상 부장되지 않는다. 파수부호는 II형식이 소멸하여 동최대경이 중하위에 있고 구연부가 내경하는 형태만이 확인된다. 대부파수부호의 경우 동최대경이 중하위로 내려간 형식이 등장한다.

도질 개는 단추형 꼭지에 신부가 만곡한 형태가 소멸된다. 우각형파수부배는 동체부가

방향에 가까운 형식만이, 양이부완은 동체에 문양이 3단으로 시문되는 형식만이 부장된다. 표주박형 토기는 동최대경이 중하위에 위치하면서 구연부에 돌대가 있는 형식이 소멸한다. 저평통형기대는 대각이 돌대에 의해 2단 이하로 구획되는 III, IV형식만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6) VI단계

VI단계는 지산동 45호 및 양전동 석곽군들이 해당된다. 기종구성이 단순화되며 전체적으로 소형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평저단경호와 연질 개는 이 단계에서 더 이상 보이지 않는 반면, 대부파수부호와 우각형파수부배는 이전 단계와 같은 형식이 VI단계 말까지 지속적으로 부장된다. 이단각 일단투창고배, 다투창고배, 무개장경호, 발형기대, 파수부호, 저평통형기대, 표주박형 토기는 VI단계 늦은 시기에 모두 소멸한다.

삼단각 이단투창고배는 전 단계의 형식이 지속되는 동시에 대각이 두껍고 구경이 넓으며 구연부가 뾰족하거나 내측에 사면을 가지는 형식이 새롭게 출현한다. 유개장경호는 동최대경이 중하위에 있으며 경부 형태가 역제형인 형식이 지속적으로 부장되며 경부가 곡선적인 형태의 것이 VI단계 이른 시기부터 소멸하기 시작한다. 도질 개는 유두형 꼭지 및 납작한 身部를 가지는 형식만이 부장된다. 배는 첨저가 소멸하고 원저에 뚜껑받이턱이 거의 약화된 형식만이 부장된다. 양이부완은 이전 단계에 보이던 형식이 지속적으로 부장됨과 동시에 늦은 시기가 되면 무문양의 형태가 일시적으로 등장하는 양상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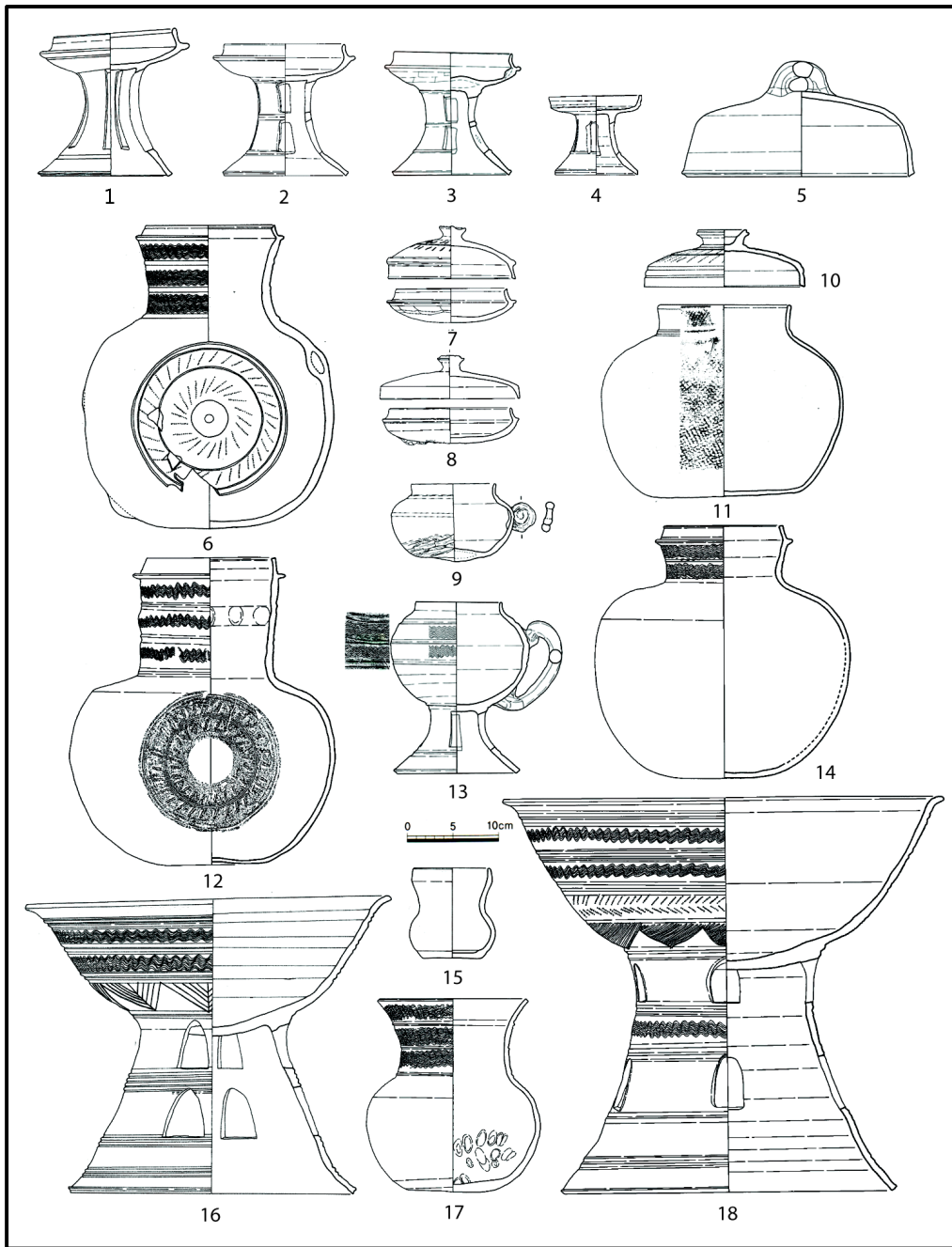


그림 30. I 단계 해당 토기군

1 : 지산32NE-1호 / 2, 4, 7, 12, 18 : 지산73호 / 3 : (영)1지구 129호 / 5 : (영)1지구 81호 / 6, 10, 11, 15, 16 : 지산35호 / 8, 17 : 지산74호 / 9 : 지산30호 / 13 : (영)1지구 76호 / 14 : 지산75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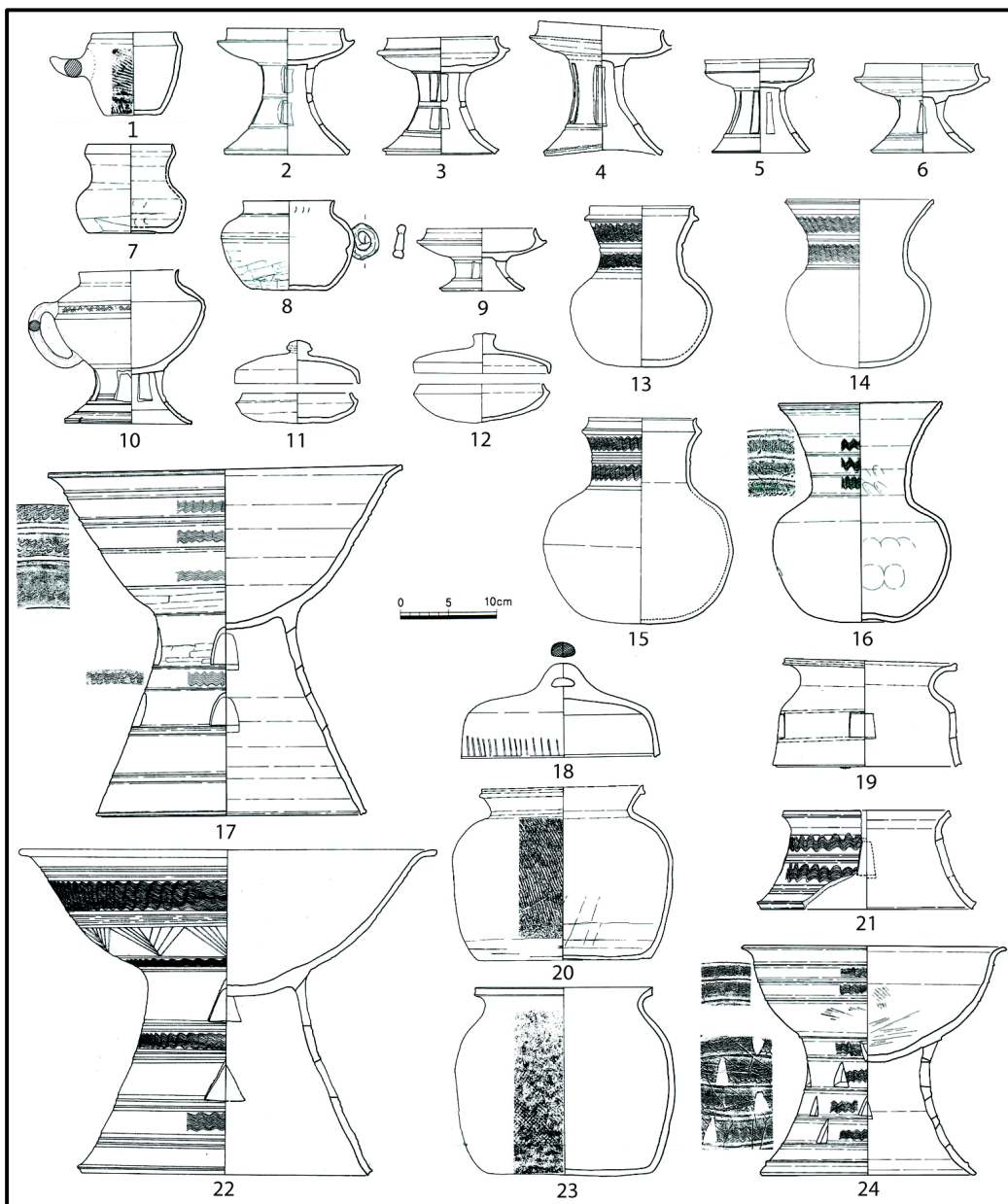


그림 31. 표단계 해당 토기군

1 : 지산32NW-2호 / 2 : (영)2지구 18호 / 3, 5, 15, 23 : 지산33호 / 4 : (경)57호 / 6, 24 : (영)1지구 125호 / 7 : (영)2지구 126호 / 8 : (영)1지구 144호 / 9, 10 : 지산34-35연결석곽 / 11, 20 : (경)29호 / 12, 13, 18 : 지산 34호 / 14 : 지산34SE-3호 / 16 : (영)2지구 116호 / 17 : (영)1지구 52호 / 21 : 지산74-8호 / 22 : 지산 3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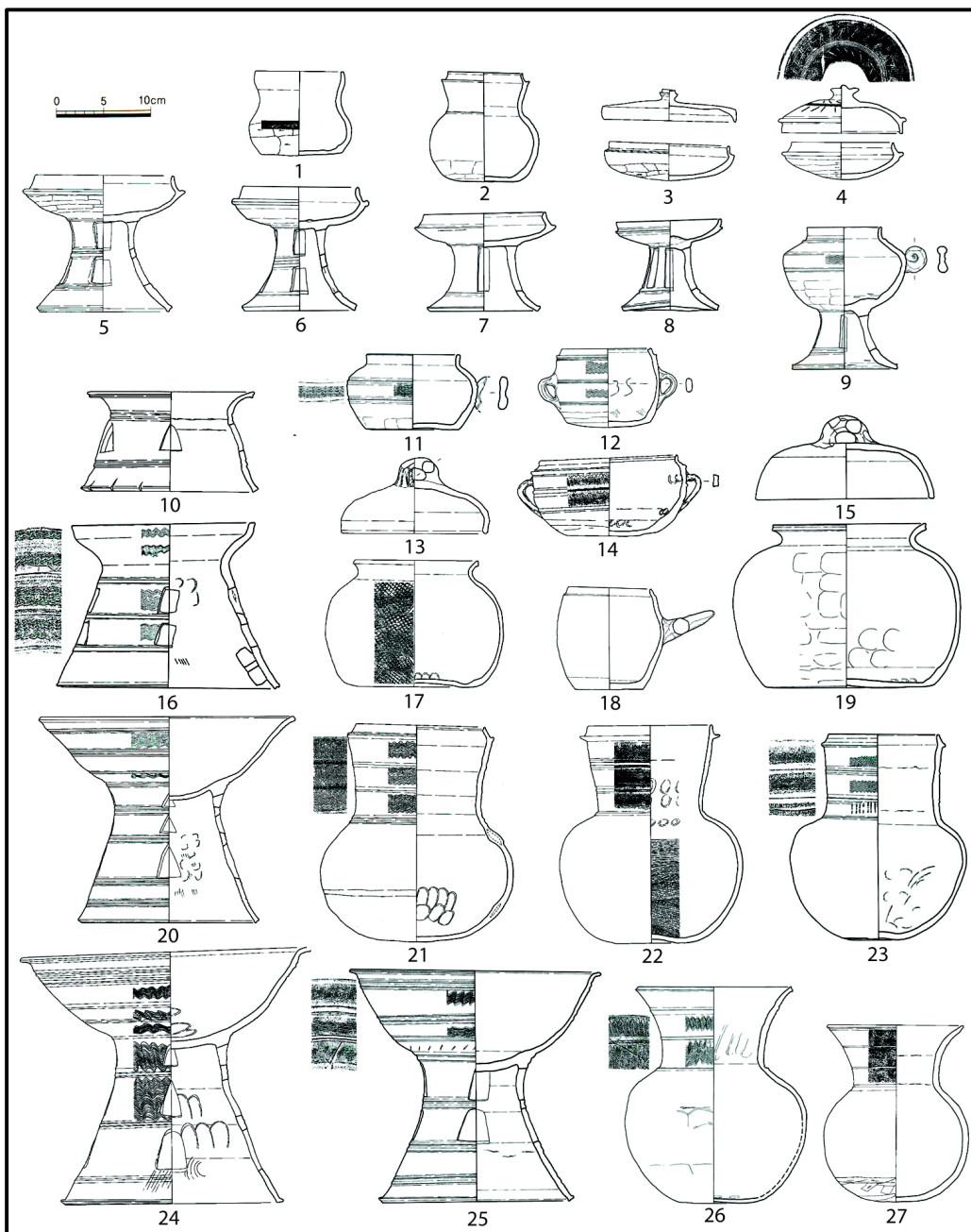


그림 32. III단계 해당 토기군

1, 10, 14 : (경)12호 / 2 : (영)1지구 67호 / 3, 21 : (영)1지구 10호 / 4 : (경)43호 / 5 : (영)1지구 36호 / 6 : (영)1지구 124호 / 7 : (영)1지구 97호 / 8 : (영)1지구 64호 / 9 : (영)2지구 3호 / 11 : (영)2지구 24호 / 13, 17, 24 : (영)1지구 2호 / 15, 19 : (영)1지구 51호 / 16 : (영)2지구 70호 / 18 : (영)1지구 84호 / 20 : (영)2지구 1호 / 22 : (경)67호 / 23 : (영)2지구 75호 / 25 : (영)2지구 80호 / 26 : (영)1지구 53호 / 27 : (경)4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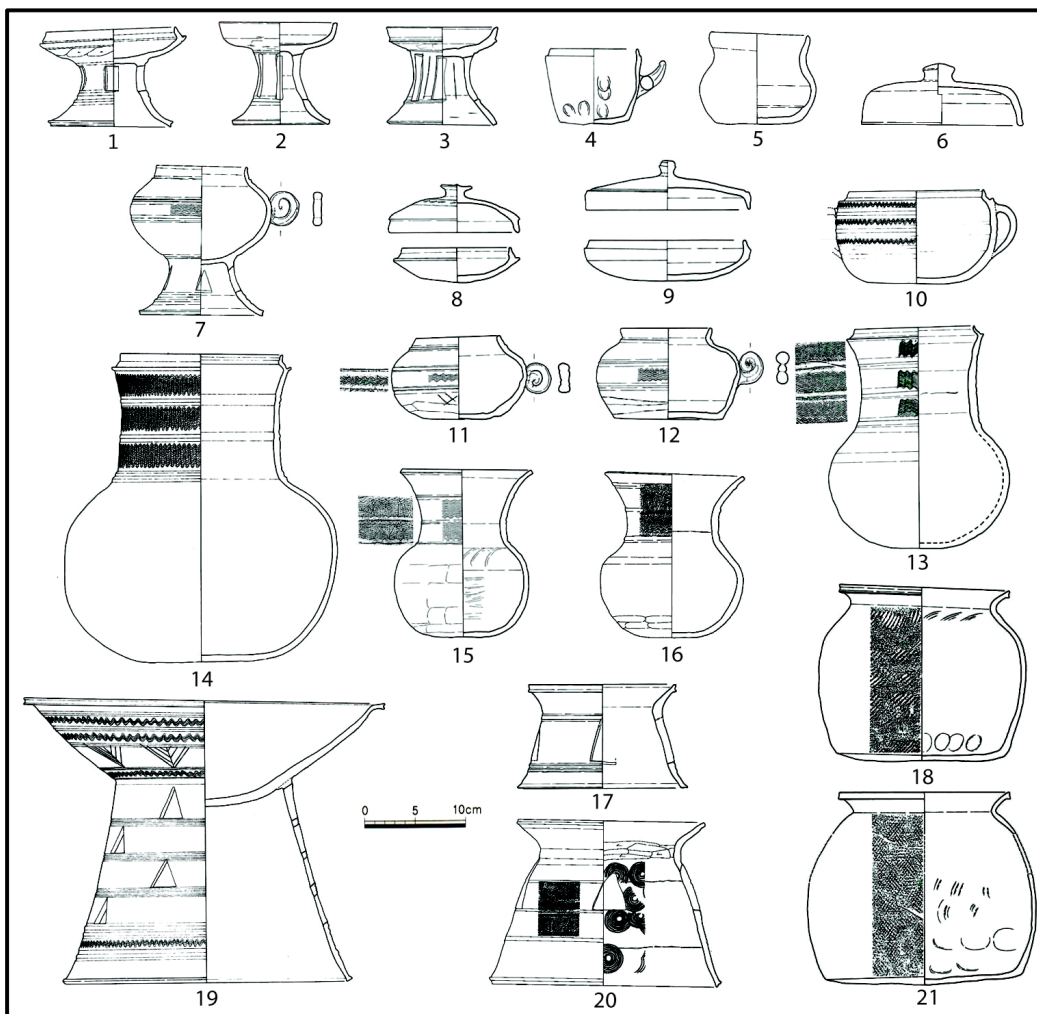


그림 33. IV단계 해당 토기군

1 : (경)49호 / 2 : (영)1지구 133호 / 3 : (영)1지구 141호 / 4, 9 : 국도12호 / 5 : (경)14호 / 6, 7 : (영)1지구 18호 / 8 : (영)2지구 106호 / 10, 14, 19 : 본관36호 / 11 : (영)2지구 89호 / 12 : (영)1지구 87호 / 13 : (영)2지구 53호 / 15 : (영)1지구 43호 / 16 : (경)73호 / 17 : (영)2지구 43호 / 18, 21 : (영)2지구 65호 / 20 : (경)79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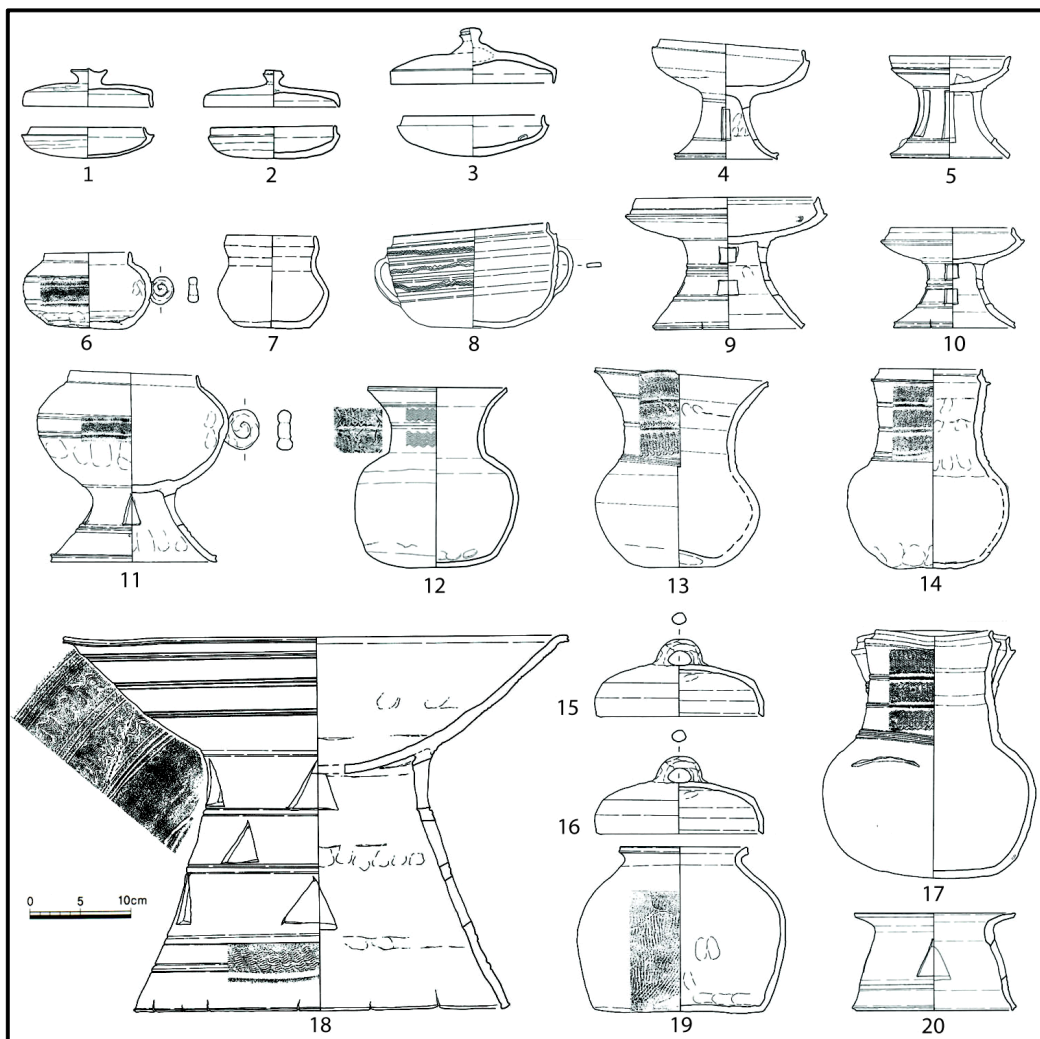


그림 34. V 단계 해당 토기군

1 : (영)1지구 123호 / 2 : (영)2지구 16호 / 3 : 국도2호 / 4, 11 : 44-15호 / 5, 6, 9, 10, 18 : 지산44호 / 7 : (경)48호 / 8 : 양전1호 / 12 : (영)1지구 85호 / 13 : 지산44-14호 / 14 : 지산44-16호 / 15, 16, 19 : 지산 44-25호 / 17 : (경)5호 / 20 : (영)2지구 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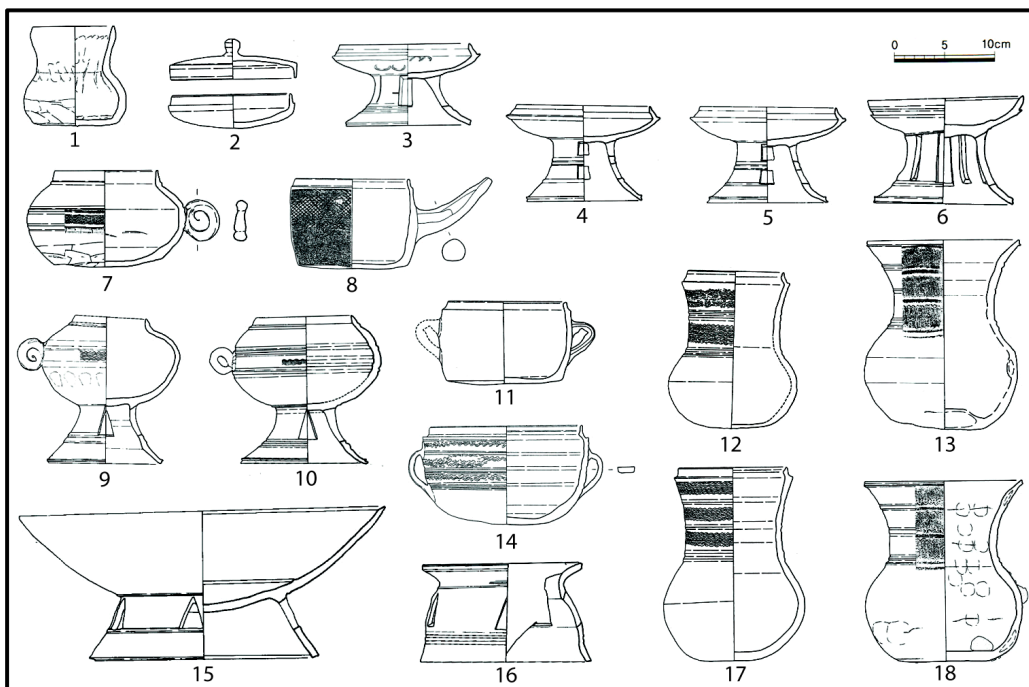


그림 35. VI단계 해당 토기군

1, 7 : 지산44-29호 / 2 : 양전2호 / 3 : 국도8호 / 4, 5, 9, 10, 15, 16 : 지산45호 / 6 : 지산45-1호 / 8, 11 : 양전25호 / 12 : 양전14호 / 13 : 지산44-4호 / 14 : 양전11호 / 17 : 양전6호 / 18 : 지산44-2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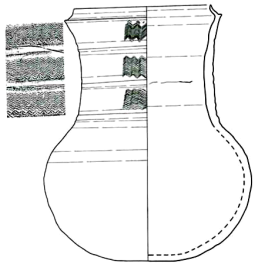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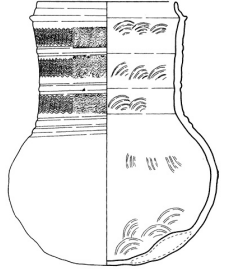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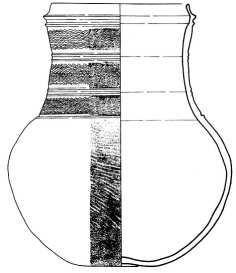
Ⅲ. 타 지역 출토 고령양식 토기 검토

1. 타 지역 출토 고령양식 토기의 종류

본 장에서는 앞서 살펴 본 고령지역 출토 토기의 특징 및 전개양상을 바탕으로 고령 외의 지역에서 출토된 고령양식 토기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우선 고령 외 지역에서 출토된 고령양식 토기들을 형태, 제작기법 등의 특징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한 뒤 지역별 출토 양상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첫 번째 경우는 중심지인 고령에서 생산된 제품, 그 자체가 이동하여 각 지역 분묘에 부장되는 경우이다. 이는 고령 중심지에서 직접 제작한 물품이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과는 완성도에서 차이를 보인다. 본고에서는 이를 ‘高靈産’이라고 해 둔다.

표 28. 타 지역 출토 고령양식 토기의 종류

| 구분 | 고령계 | | |
|----|---|--|---|
| 도면 |  |  |  |
| 종류 | 고령산 | 충실고령계 | 모방고령계 |
| 특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선된 태토 ·문양시문이 정연,세밀 ·경기부 돌대 뚜렷 ·동체부 물손질 정면 (타날 잔존X) ·완전 소성 (동체부 전면에 자연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석립 및 사립 혼입 ·문양시문 정연,세밀 ·경기부 돌대 뚜렷 ·동체부 물손질 정면 (타날 거의 잔존X) ·불완전 소성 (일부 자연유 부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석립 및 사립 다량 혼입 ·문양시문이 조잡,산만 ·경기부 돌대 희미 ·동체부 물손질 섬세X (타날흔 잔존O) ·불완전 소성 (일부 자연유 부착) |

두 번째는 고령의 토기 제작 공인이 타 지역으로 이동하여 재지에서 생산하는 경우이다. 이는 고령지역에서 활용하는 제작 기술을 보유한 공인이 타 지역으로 이동하여 제작한 물품이므로 외부적인 형태에서는 ‘고령산’ 제품과 동일하나, 사용하는 재료 및 토기 소성에 쓰이는 가마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태토, 색조, 소성 상태 등에서 ‘고령산’ 제품과는 차이를 보인다. 본고에서는 이를 ‘忠實 高靈系’ 토기로 부르고자 한다.

한편 고령지역 일부 중·소형분 출토 토기 중에서도 정면 상태가 고르지 않고 불완전하게 소성된 제품들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고령 외의 지역에서 출토된 ‘충실 고령계’ 토기 중에도 실제로는 고령에서 제작된 제품이 혼재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고령지역 내에서 생산된 제품은 대부분이 정선된 태토, 정연하고 세밀한 문양 시문, 소성과 정면에 있어서의 완전성 등의 요소들을 가지고 있으며 그렇지 않은 제품들은 일부에 불과하다. 또한 ‘충실 고령계’ 토기의 경우 재지의 가마에서 제작한 토기이므로 태토에 석립 및 사립이 다량 혼입되어 정선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고령 외 지역에서 제작된 고령양식 토기 중 세 번째 경우는 고령지역 내에서 사용하던 토기 제작 기술만이 전달되어 각 지역 토착 공인들에 의해 모방 제작되는 경우이다. 이는

앞의 두 경우와 기형, 세부 속성, 태토, 색조 등에서 모두 차이를 보인다. 본고에서는 이를 ‘模倣 高靈系’라고 부르하고자 한다. 전체적으로 재지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일부 고령계 요소를 더하는 경우 또는 전체적인 형태는 고령양식을 모방하면서 여기에 일부 재지 요소를 더하는 양상을 포함한다.

이와 같이 세 가지 경우를 합하여 ‘高靈系 土器’라고 하며 이 외의 소가야, 아라가야, 재지계 토기 등을 통칭하여 ‘非 高靈系 土器’라고 부르하고자 한다. 아래의 〈그림 36〉은 고령계 토기의 분포권을 지도에 표시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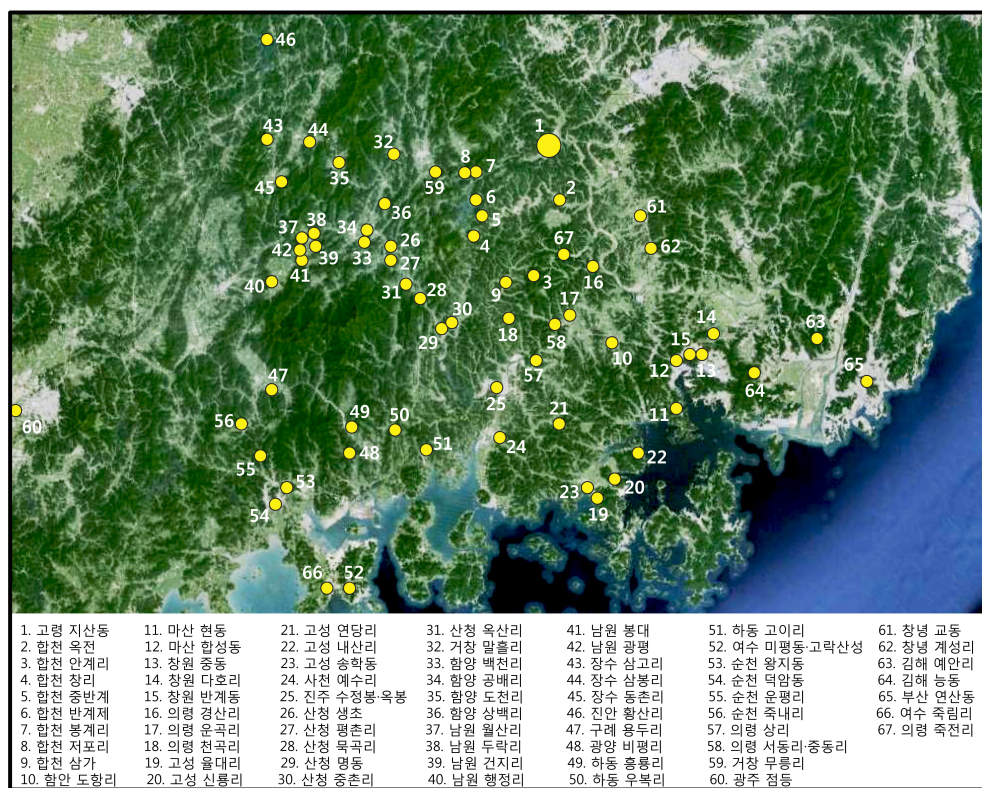


그림 36. 高靈系 토기 분포도

2. 출토 유형별 검토

고령 외 지역에서 출토되는 고령계 토기의 공반양상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 각 유형 내에서도 몇몇 특징에 따라 세분하였다. 1유형은 각 지역별 고령계 토기가 공반된 유구 수량이 1기인 경우이다. 대부분 고령과 거리상 먼 곳에 위치하며 해당 유구 내에서

출토된 고령계 토기 수량 또한 적다. 2유형은 지역별 고령계 토기가 출토된 유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30%이하인 경우 또는 지역별 각 유구에서 기종 구성상 고령계 토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40% 미만인 경우이다. 3유형은 지역별 고령계 토기가 공반된 유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상이면서 각 유구별 고령계 토기 비율이 60% 미만인 경우이다. 4유형은 각 지역에서 고령계 토기가 공반된 유구가 30% 이상이면서 유구별 고령계토기의 점유율이 60% 이상인 경우이다. 각 유형들은 출토된 고령계 토기의 양상에 따라 다시 세분 가능하다.

표 29. 지역별 고령계토기 출토 유구의 비율 빈도분포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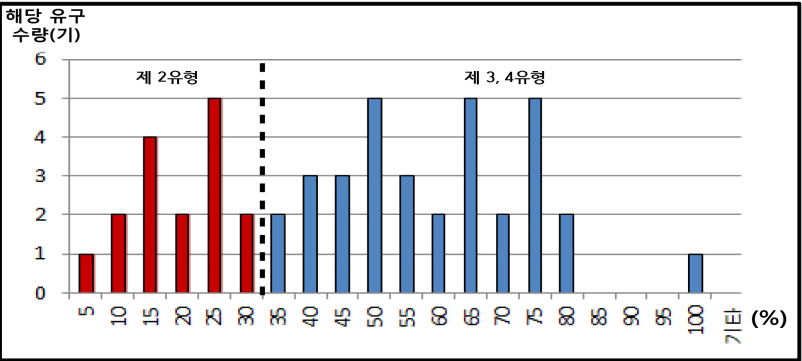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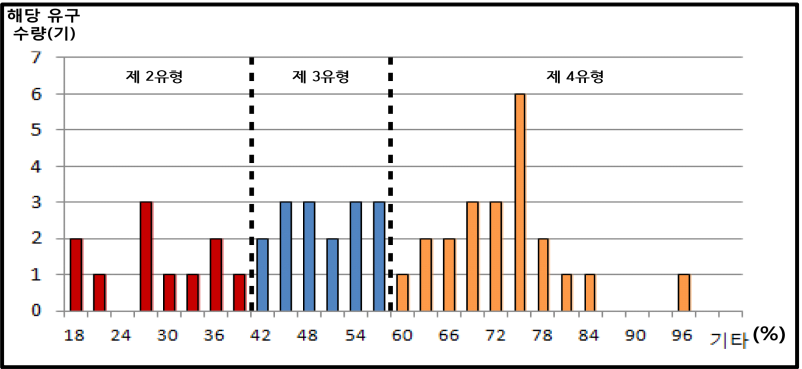


표 30. 유구별 고령계토기 구성 비율 빈도분포표



1) 제 1유형: 고령과의 관계도 下①

해당 지역 내에서 고령계 토기가 출토된 유구의 수량이 1기인 경우이다. 대부분 고령과 거리상 먼 곳에 위치하며 해당 유구에서 출토되는 고령계 토기의 양 또한 적다.

지역별 고령계토기의 종류에 따라 세분이 가능하다. 첫째는 고령산 제품이 다수를 차지하는 곳으로 여수 미평동, 고락산성, 남원 행정리 등의 유적으로 고령산 제품 일부가 흘러들어가

부장된 것으로 생각된다.

표 31. 제 1유형 해당 유적

(○ : 기타, 재지계 / ▲ : 소가야식 / ◎ : 아라가야식 / ◆ : 백제식 / □ : 경주식)

| 지역 | 유구명 | 전체 유구 수 | 고령계 토기 구성 비율(%) | 공반유물 |
|----|------|---------|-----------------|-------|
| 고성 | 울대리 | 1 | 30 | □/○ |
| 광양 | 비평리 | 1 | 50 | - |
| 광주 | 점등 | 1 | 30 | ◆/○ |
| 구례 | 용두리 | 1 | 25 | ○ |
| 남원 | 광평 | 6 | 29 | ▲ |
| | 행정리 | 13 | 20 | ○ |
| 산청 | 중촌리 | 6 | 3 | ▲/○ |
| 순천 | 죽내리 | 7 | 33 | ▲/◆/○ |
| | 덕암동 | 12 | 57 | ▲/○ |
| 여수 | 죽림리 | 73 | 33 | ◎/○/▲ |
| | 고락산성 | 1 | 5 | ◆ |
| | 미평동 | 1 | 25 | ○ |
| 의령 | 운곡리 | 7 | 20 | ◆/□? |
| | 상리 | 1 | 5 | ▲/○ |
| | 서동리 | 1 | 52 | ▲/○ |
| 진주 | 수정봉 | 1 | 50 | ▲?/○ |
| | 옥봉 | 1 | 45 | ▲?/○ |
| 창녕 | 계성리 | 2 | 7 | ◆/○ |
| | 교동 | 5 | 3 | ○ |
| 하동 | 고이리 | 19 | 50 | ◆/○ |

두 번째는 충실 고령계 토기가 다수인 경우로 고성 울대리, 진주 수정봉 등이 해당된다. 고령과의 거리 및 출토된 고령계 토기의 수량 등으로 보아 충실 고령계 토기를 제작한 주변 지역에서 일부 제품이 유입된 것으로 판단된다.

세 번째는 모방 고령계가 다수인 경우로 광주 점등, 산청 중촌리 등이 해당된다. 고령 또는 고령 주변에서 고령양식 토기의 요소를 일부 받아들인 후 재지에서 소량 모방 제작하거나 주변에서 제작된 모방 고령계 토기가 일부 유입된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1유형의 경우 고령계 토기의 종류에 상관없이 부장된 양이 극소하므로 중심 지인 고령과 직접적인 지배·피지배 관계는 형성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2) 제 2유형: 고령과의 관계도 下②

표 32. 제 2유형 해당 유적

(○ : 기타, 재지계 / ▲ : 소가야식 / ◎ : 아라가야식 / ◆ : 백제식 / □ : 경주식)

| 구분 | 지역 | 유구명 | 전체 유구 수 | 고령계토기 출토 유구(비율%) | 고령계토기 구성 비율(%) | 공반유물 |
|------------------------|----|-----|---------|------------------|----------------|-----------|
| 고령계토기 출토 유구 비율 30% 이하 | 고성 | 송학동 | 17 | 4(24) | 20 | ▲/□/○ |
| | | 내산리 | 32 | 7(22) | 26 | ▲/□ |
| | | 신룡리 | 27 | 6(22) | 66 | ▲/◆/○ |
| | 김해 | 능동 | 108 | 13(12) | 25 | □/?/○ |
| | | 예산리 | 88 | 3(3) | 64 | □/○ |
| | 남원 | 봉대 | 8 | 2(25) | 44 | ▲/◆/□/?/○ |
| | 마산 | 현동 | 40 | 5(13) | 75 | ○ |
| | | 합성동 | 90 | 19(21) | 41 | ▲/◎/□/○ |
| | 부산 | 연산동 | 15 | 2(13) | 96 | ○ |
| | 산청 | 묵곡리 | 87 | 23(26) | 30 | ▲/◎/◆/○ |
| | | 명동 | 120 | 10(8) | 31 | ▲/○/◆ |
| | 의령 | 천곡리 | 44 | 8(18) | 35 | ▲/○ |
| | 창원 | 다호리 | 47 | 7(15) | 45 | □/○ |
| | 하동 | 우복리 | 10 | 3(30) | 62 | ○ |
| | 함안 | 도항리 | 216 | 18(8) | 34 | ▲/◎/○ |
| | 합천 | 저포리 | 103 | 20(19) | 46 | ▲/□/○ |
| 유구별 고령계토기 구성 비율 40% 미만 | 고성 | 연당리 | 4 | 2(50) | 16 | ▲/□/○ |
| | 남원 | 건지리 | 17 | 13(76) | 38 | ◆/○ |
| | 사천 | 예수리 | 6 | 2(33) | 25 | ○ |
| | 의령 | 중동리 | 4 | 2(50) | 18 | ○ |

지역별 전체 유구에서 고령계 토기가 출토된 유구의 비율이 30% 이하인 경우 또는 각 유구의 고령계 토기 점유율이 40% 미만인 경우이다. 1유형과 동일하게 고령계 토기가 출토되는 유구의 비율 및 각 유구에서의 고령계 토기 점유율이 낮다.

지역별 고령산 제품이 다수인 경우는 고성 신룡리, 합천 저포리 등으로 장경호류 및 개배류가 주류를 이룬다.

충실 고령계 토기가 다수인 경우는 고성 송학동, 마산 현동, 창원 다호리 등으로 장경호류 및 개배류가 주류를 이루고 고배류도 소량 포함된다. 고령산 제품이 다수인 경우와 비교했을 때 고령지역과 좀 더 적극적인 관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나 출토 수량이 적고 非고령계 토기의 점유율이 높으므로 간접 지배 권역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

모방 고령계 토기가 다수인 경우는 의령 중동리, 남원 건지리, 고성 연당리 등으로 장경호류가

많고 일단투창고배 및 개배류의 부장 또한 두드러진다. 고령과 정치적 상하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지역 간 교류는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제 3유형: 고령과의 관계도 中

표 33. 제 3유형 해당 유적

(○ : 기타, 재지계 / ▲ : 소가야식 / ◎ : 아라가야식 / ◆ : 백제식 / □ : 경주식)

| 지역 | 유구명 | 전체 유구 수 | 고령계토기 출토 유구(비율%) | 고령계토기 구성 비율(%) | 공반유물 |
|----|-----|---------|------------------|----------------|---------|
| 남원 | 월산리 | 14 | 10(71) | 52 | ▲/◆/○ |
| 산청 | 옥산리 | 146 | 93(64) | 47 | ◆/▲/□/○ |
| 순천 | 왕지동 | 8 | 6(75) | 41 | ○ |
| | 운평리 | 24 | 15(63) | 46 | ▲/○ |
| 의령 | 경산리 | 51 | 23(45) | 55 | ◆/▲/○ |
| | 죽전리 | 11 | 7(64) | 44 | ▲/□/○ |
| 장수 | 동촌리 | 14 | 9(64) | 53 | ○ |
| 진안 | 황산리 | 17 | 11(65) | 53 | ◆/○ |
| 창원 | 중동 | 36 | 16(44) | 49 | ▲/□/○ |
| 합천 | 삼가 | 131 | 42(32) | 56 | ▲/□/○ |
| | 옥전 | 341 | 170(50) | 49 | ◆/▲/□/○ |

지역별 고령계 토기가 출토된 유구가 30% 이상이면서 유구별 고령계 토기의 점유율이 60% 미만인 경우이다. 1·2유형에 비해 고령계 토기의 출토 비율이 높으나 개별 유구 내에서의 점유율은 높지 않으므로 직접지배 권역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최소한의 교류·교역, 연맹 관계를 이룬 것으로 추측된다.

지역별 출토된 토기 중 고령산 제품이 다수를 차지하는 경우는 의령 죽전리 및 합천 옥전지역이 해당된다. 의령 죽전리의 경우 고령계 토기를 일부 공반하지만 소가야식 묘제를 사용하고 있어 직·간접지배 권역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고령과의 교류 또는 연맹 관계를 통해 고령산 제품을 수입하여 분묘에 부장한 것으로 생각된다. 옥전지역의 경우 고령산 및 충실 고령계 토기의 점유율이 높으며 다양한 기종의 토기 출토량 또한 상당하다. 그러나 재지의 토기 및 타 지역 토기의 부장량 또한 상당하며 공반되는 다량의 무기와 마구에서 독자성을 보이기 때문에 옥전과 고령지역 집단은 서로 동등한 관계에서 단독한 연맹 관계를 맺은 것이라 추측된다.

유구별 출토 된 고령계 토기 중 충실 고령계가 다수인 경우는 순천 운평리, 의령 경산리,

합천 삼가지역 등이 해당된다. 개별 유구에서 출토되는 고령계 토기의 양이 적거나 고령계 토기가 공반되는 유구의 비율이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간접 지배권역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최소한의 교류·교역 또는 연맹 관계를 맺은 것으로 생각된다.

유구별 출토된 고령계 토기 중 모방 고령계가 다수인 경우는 남원 월산리, 산청 옥산리, 진안 황산리 등이 해당된다. 이 경우 또한 중심지인 고령과 해당 지역들이 교류·교역 또는 연맹 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추정된다.

4) 제 4유형: 고령과의 관계도 下

표 34. 제 4유형 해당 유적

(○ : 기타, 재지계 / ▲ : 소가야식 / ◎ : 아라가야식 / ◆ : 백제식 / □ : 경주식)

| 지역 | 유구명 | 전체 유구 수 | 고령계토기 출토 유구(비율%) | 고령계토기 구성 비율(%) | 공반유물 |
|----|-----|---------|------------------|----------------|-----------|
| 거창 | 말흘리 | 10 | 7(70) | 62 | ◆/○ |
| | 무릉리 | 4 | 3(75) | 67 | ◆/○ |
| 남원 | 두락리 | 5 | 3(60) | 78 | ○ |
| 산청 | 생초 | 94 | 66(70) | 75 | ▲/◆/○ |
| | 평촌리 | 238 | 128(53) | 71 | ▲/◆/□/?/○ |
| 장수 | 삼고리 | 19 | 10(52) | 68 | ▲/○ |
| | 삼봉리 | 6 | 3(50) | 78 | ○ |
| 창원 | 반계동 | 35 | 21(60) | 61 | □/○ |
| 하동 | 홍릉리 | 43 | 18(41) | 60 | ▲/◆/□/○ |
| 함양 | 공배리 | 16 | 12(75) | 74 | □/○ |
| | 도천리 | 12 | 6(50) | 75 | ○ |
| | 상백리 | 4 | 4(100) | 82 | ○ |
| | 백천리 | 8 | 3(37) | 71 | ○ |
| 합천 | 반계제 | 39 | 31(79) | 80 | ◆/○ |
| | 봉계리 | 223 | 121(54) | 73 | ◆/▲/□/○ |
| | 안계리 | 20 | 8(40) | 67 | ▲/□/○ |
| | 중반계 | 20 | 15(75) | 72 | ○ |
| | 창리 | 183 | 71(38) | 73 | ▲/◆/□/○ |

각 지역별 고령계 토기가 출토된 유구가 30% 이상이며 유구별 고령계 토기의 점유율이 60% 이상인 경우이다. 유구별 출토된 고령계 토기 중 고령산 토기가 다수를 차지하는 경우는 함양 백천리, 합천 반계제 등의 지역이다. 이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고령지역과 근거리에 위치하며 다양한 기종의 고령계 토기가 부장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 경우 고령지역 집단의 직접 지배권역에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별 출토된 고령계 토기 중 충실 고령계의 비율이 높은 경우는 중심지인 고령과 거리

상으로는 원거리에 위치하나 고령과의 밀접한 관계를 통해 다량의 고령양식 토기 재현품을 부장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 경우 대부분 충실 고령계 토기와 함께 재지계 토기가 비슷한 비율로 부장된다. 고령지역 집단의 간접지배 하에 속함으로써 고령의 토기 제작 공인이 해당 지역으로 이동하여 충실 고령계 토기를 생산 및 부장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별 출토된 고령계 토기 중 모방 고령계 토기의 비율이 다수를 차지하는 경우는 앞의 고령산 또는 충실 고령계 토기가 다수인 지역에 비해 중심지인 고령과의 밀접한 관계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각 지역마다 고령계 토기에 상응할 만큼의 재지계 토기 및 타 지역 토기가 부장되는 양상이 관찰된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 이 경우는 고령계 토기 출토량 자체가 많고 개별 유구 내 고령계 토기 점유율 또한 높기 때문에 해당 지역은 간접 지배권역에 속하거나 최소한 연맹 관계를 이룬 것이라 생각된다.

IV. 고령양식 토기의 분포권 변화

본 장에서는 앞서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고령양식 토기의 분포권 변화 양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각 지역 분묘에서 출토되는 고령양식 토기들을 필자가 마련한 고령지역 출토 토기 편년안에 대입하여 병행하는 시기를 추출하였다. 그 결과 고령양식 토기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5세기 중반, 고령지역 집단의 성장과 함께 고령양식 토기의 확산이 활발해지는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초반, 고령지역 집단의 세력 약화에 따라 고령양식 토기의 확산이 위축되는 6세기 중반의 세 단계로 크게 구분이 가능하였으며 각 단계별로 변화의 흐름을 살펴보았다.

한편, 지역 분묘에서 출토되는 모방고령계 토기의 경우 고령산 제품과는 형식상의 차이가 존재하여 고령지역 토기 편년안에 직접적으로 대입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고령 외 지역 출토 고령양식 토기의 경우 ‘고령산’ 토기 및 ‘충실 고령계’ 토기를 위주로 검토하였으며 여기에 ‘모방 고령계’ 토기를 더하여 검토하였다.

1. 5세기 중반: 고령양식 토기의 성립

5세기 중반은 대가야 초기 지배 집단이 고령지역에 정착한 시기이다. 지산동을 중심으로 73·75호, 35·30호와 같은 대형분이 축조되기 시작한다. 우각형파수부배와 양이부완, 저평통

형기대를 제외한 다양한 토기 기종들이 부장되며 이른 시기부터 토기 기종별 여러 型式이 동시에 출현하는 양상을 보여 주목된다.

5세기 중반의 이른 시기에는 타 지역으로의 고령양식 토기 확산 현상이 거의 확인되지 않는데, 이는 대가야 초기 지배 집단이 고령지역에 정착하여 내부 기반을 다지는 데에 집중하였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5세기 중반 늦은 시기가 되면 가까운 주변의 합천 옥전, 창녕 교동 및 계성리 지역에서 고령양식 토기가 소량 공반되는 현상이 관찰된다. 합천 옥전은 고령지역 지배 집단과 교류관계를 보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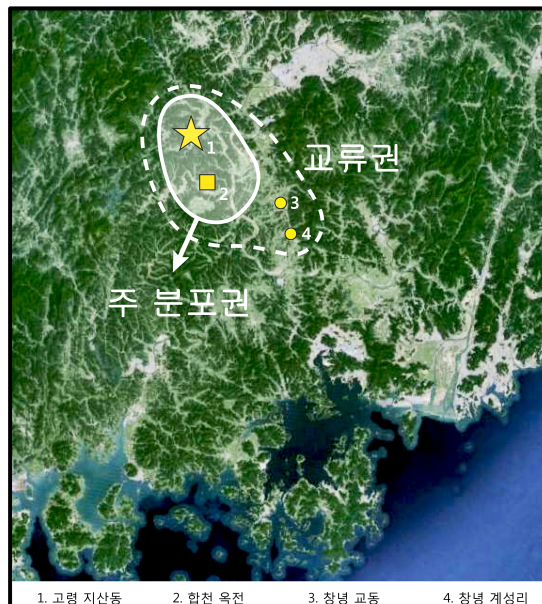


그림 37. 5세기 중엽 고령계토기 분포양상
(★:직접지배권 ■:교류/연맹권 ●:교류권)

는 지역으로, 이 시기부터 이미 고령지역 집단과 접촉하여 긴밀한 관계를 맺기 시작한 것으로 생각된다. 창녕 교동과 계성리에서도 소량의 고령양식 토기가 출토되는데, 이는 대가야 중심 세력이 고령에 자리 잡은 후 주변 지역과의 교류를 시작하려는 시점에 지리적으로 가까운 창녕을 그 대상으로 선택하여 나타난 현상이라 판단된다.

즉 5세기 중엽 경 고령지역에 대가야 초기 지배 집단이 정착하였고, 주변의 합천 옥전 집단과의 교류·교역을 통해 내부 기반을 다지고 세력을 키워나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근처 낙동강 수계를 이용해 가까운 창녕 지역과 교류하였으며 이를 통해 대외 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생각되어진다.

2. 5세기 후반~6세기 초반: 고령양식 토기의 대외 확산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초반의 시기가 되면 고령지역 지배 집단의 세력이 최고점에 이르게 된다. 지산동 44호분과 같이 다량의 부장품을 가지는 대형분이 축조되며 전형적인 형식의 고령양식 토기가 다량으로 부장된다. 이와 같이 탄탄한 세력기반을 마련한 고령지역 집단은 이 단계부터 본격적으로 대외확산 정책을 펼쳐나가기 시작한다. 그 결과 고령과 가까운 지역뿐만 아니라 먼 거리에 있는 다양한 지역에서 고령양식 토기가 다량으로 부장되는 현상이 관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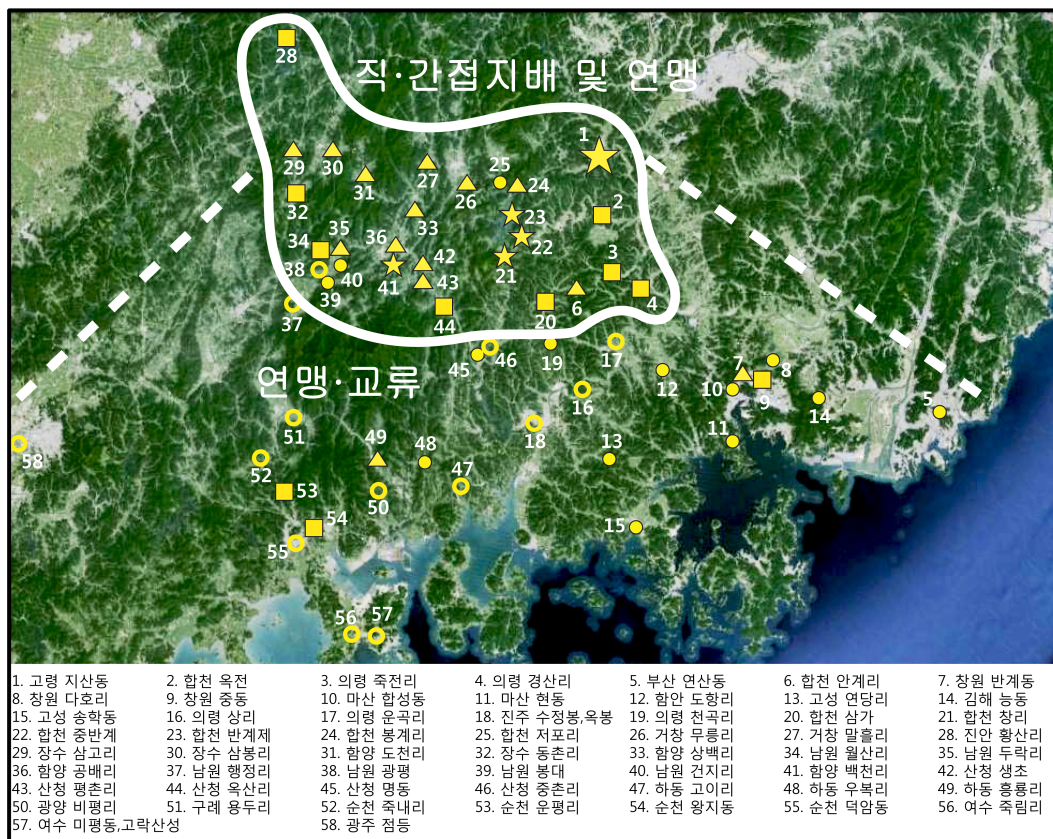


그림 38. 5세기 후엽~6세기 초엽 고령계토기 분포양상

(★:직접지배권 ▲:간접지배/연맹권 ■:교류/연맹권 ●:교류권 ○:교류/단순유입권)

타 지역에서 출토되는 고령양식 토기의 경우 장경호와 개배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며 고배, 양이부완, 저평통형기대, 발형기대 등의 기종이 소량 확인된다. 장경호는 유개식이며 경부가 곡선적으로 잘록하고 3단으로 구획되어 파상문을 시문한 전형적인 형식이 주로 출토된다. 한편, 삼단각 이단투창고배의 경우 고령지역 내에서는 중대형급 무덤, 합천 옥전지역 내에서는 M3호 단계부터 다량으로 부장되나 그 외 지역에서는 거의 출토되지 않는 현상이 관찰된다. 다른 지역의 경우 합천 옥전지역과는 달리 삼단각 이단투창고배 보다는 이단각 일단투창고배의 부장이 두드러진다. 이와 같이 다른 지역에 비해 합천 옥전지역에서의 고령양식 토기의 출토량이 월등히 높은 점, 고령지역과 유사하게 고령양식의 삼단각 이단투창고배를 부장하는 전통을 선호한다는 점 등으로 보아 옥전 M3호 단계부터는 고령과 옥전 지역 집단 사이에 교류를 넘어선 연맹·연합과 같은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추측되어진다.

3. 6세기 중반: 고령지역 집단의 쇠퇴 및 고령양식 토기 분포권의 축소

6세기 중반은 고령지역 집단의 세력이 점차 쇠퇴하는 시기이다. 고령지역 내에서는 지산동 45호분을 기점으로 더 이상 대형분이 축조되지 않으며 출토되는 토기의 변화 또한 더딘 양상을 보인다. 전체적으로 토기가 소형화되며 기종에 관계없이 무문양이 증가한다. 토기의 기종 및 형식 또한 단순화된다.

고령지역 지배 집단의 세력 쇠퇴에 따라 이전 단계의 광범위했던 고령양식 토기의 분포권이 축소된다. 고령지역 집단의 직·간접적 지배하에 있었거나 연맹관계를 맺고 있었던 고령 서쪽 지역으로 고령양식 토기의 주 분포권이 유지된다. 고령 남쪽 지역의 경우 고성, 진주, 창원 등과 같은 일부 지역만이 고령지역 집단과 교류 및 연맹관계를 지속한다. 한편 순천, 하동, 여수 등과 같은 고령지역과 먼 거리에 위치한 지역의 경우 고령양식 토기의 부장이 중단되는데 이는 주변국인 백제, 신라의 영향으로 해당 지역과 고령지역간의 정치·경제적인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 판단된다. 점차 백제 및 신라의 세력이 확장됨에 따라 고령지역 집단의 세력 범위는 더욱 줄어들게 되며 562년 신라에 병합되며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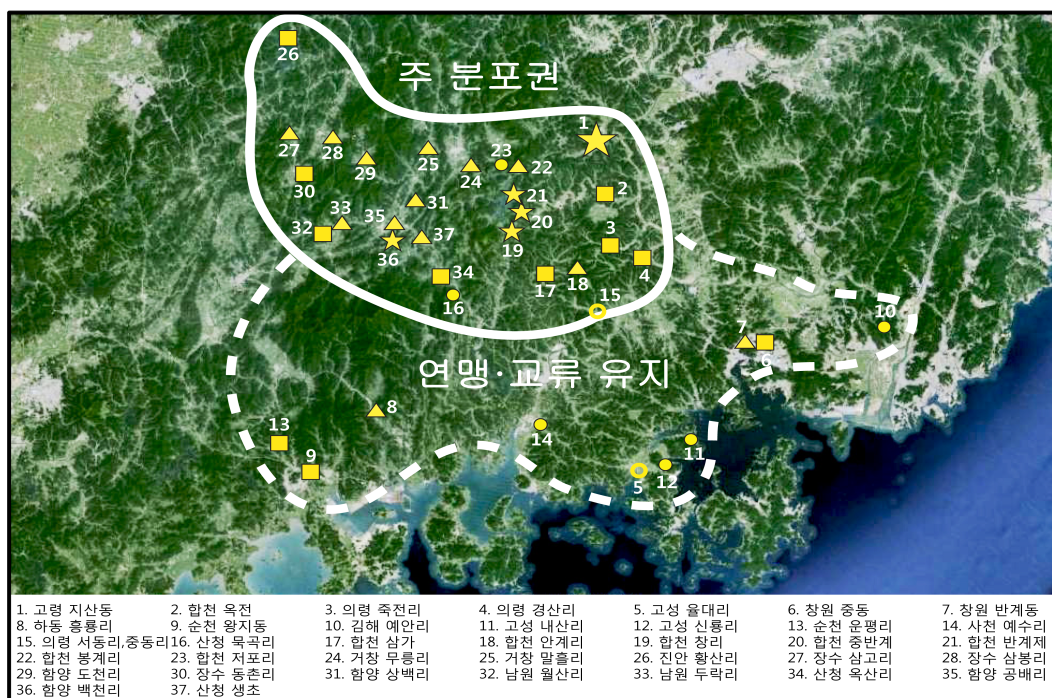


그림 39. 6세기 중엽 고령계토기 분포양상

(★:직접지배권 ▲:간접지배/연맹권 ■:교류/연맹권 ●:교류권 ◎:교류/단순유입권)

V. 맺음말

지금까지 삼국시대 고령지역과 그 주변에서 출토되는 고령양식 토기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선적으로 고령양식 토기의 특징 및 전개양상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고령지역 대형분 및 중·소형분 등에서 출토된 총 16개 기종의 토기들을 대상으로 검토를 진행하였다. 기종별로 시간성을 내포하고 있는 속성들을 추출하여 분석한 뒤 형식 분류 하였으며 각 기종의 출현과 소멸, 기종별 형식의 생성과 소멸 등에 초점을 맞추어 시간적인 변화 단계를 구분하였다. 그 결과 5세기 3/4분기에 해당하는 I 단계부터 6세기 2/4분기 전반에서 562년까지에 해당하는 VI단계까지 총 6개의 단계로 구분하여 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 과정을 통해 고령지역 토기의 경우 초기에 우각형파수부배, 양이부완, 저평통형기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종이 출현하며 형식 또한 초기부터 다양하게 등장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5세기 4/4분기 후반인 III단계에 토기 출토량이 급증하며 토기의 각 기종 및 형식이 가장 다양하게 관찰된다. 6세기에 들어선 IV단계부터 점차 일부 기종의 형식 소멸이 시작되며 V단계에 본격화되어 VI단계에는 일부 기종만이 소형화 되어 존속하게 되는데, 이는 고령지역 지배 집단의 세력 발전과 쇠퇴의 양상과 흐름을 같이 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한편 기존에 대가야 토기에 대한 연구에 있어 주목받지 못했던 고령지역 내 중·소형분들이 5세기 4/4분기 후반에서 6세기 1/4분기 전반에 해당하는 III·IV단계에 위치함을 알게 되었으며 이 두 단계에 해당하는 대형분의 존재 가능성을 확인 하였다.

III장에서는 이러한 고령지역 출토 토기들을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고령 외의 지역에서 출토된 고령양식 토기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선 타 지역에서 출토되는 고령양식 토기를 형태, 제작 방식, 태토 등의 특징에 따라 ‘고령산’, ‘충실 고령계’, ‘모방 고령계’ 토기로 구분하였다. 이후 각 지역별로 출토된 이러한 고령양식 토기들의 공반 양상을 살펴보는 과정을 통해 해당 지역과 중심지인 고령과의 관계 총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유추하였다. 그 결과 1유형은 단순 이입 혹은 교류, 2유형은 교류 및 교역, 3유형은 교류 또는 연맹, 4유형은 연맹 또는 지배권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마지막 IV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고령양식 토기의 시기별 분포 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5세기 중반 대가야 초기 지배 집단이 고령에 정착하여 성장하며 이른 시기부터 합천 옥전과 교류한 것으로 판단된다. 5세기 후반~6세기 초반에 본격적인 대외 확산 정책을 펼치기 시작하는데, 고령 서쪽으로의 진출 외에 낙동강 및 남강 유역의 고성, 진주, 의령, 함안, 김해지역으로의 확산이 관찰된다. 반면 고령 남쪽 지역의 경우 주변의 소

가야, 아라가야, 신라 등의 세력으로 인해 교류 또는 연맹관계를 맺는 것에 그치는 양상을 보인다. 또한 왜와의 교섭을 위한 창구로 의령, 여수, 순천 등의 지역으로도 진출하는 모습을 보인다. 6세기 중반이 되면 고령지역 집단의 세력 쇠퇴에 따라 고령양식 토기의 분포권 또한 축소되는 양상이 관찰되는데, 고령 서쪽에 위치한 지역의 경우 지속적으로 고령 지배 집단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백제, 신라 등의 세력 확장으로 인해 고령지역 세력은 더욱 약화되며 562년 신라에 의해 병합되어 멸망한다.

위와 같이 본고에서는 고령양식 토기를 검토하는 것을 통해 세부적인 변천 양상 및 확산에 대해 살펴보았다. 필자가 앞서 지적하였듯 지역 간 관계양상을 유추하는 과정에 있어서 공반되는 유물 및 묘제의 검토에 다소 부족한 부분들이 존재한다. 또한 미발굴된 자료 또는 미보고된 유적들이 많아 자료 검토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러한 점들은 문제로 삼아 차후의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참고문헌

- 郭鍾喆, 1988, 「韓國慶尙北道陶質土器の地域相研究-いわゆる高靈系土器を素材として」
- 金斗喆, 2001, 「大加耶古墳의 編年 檢討」, 『韓國考古學報』 45, 韓國考古學會
- _____, 2010, 「棺床과 前期加耶의 墓制」, 『韓國考古學報』 75, 韓國考古學會
- 김세기, 2000, 『古墳資料로 본 大加耶』,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정완, 2000, 「咸安圈域 陶質土器의 編年과 分布變化」, 『伽耶考古學論叢』 3, 伽耶文化研究所
- 김종철, 1982, 「大加耶墓制의 編年研究-고령 지산동고분군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집』 9,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 김지연, 2013, 『小加耶樣式 土器의 研究』,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朴廣春, 1990, 「陝川地域 土器의 編年的 研究 : 豎穴式石槨墓·石棺墓 出土 土器를 中心으로」, 『考古歷史學志』 5-6, 동아대학교박물관
- _____, 2012, 「가야토기 樣式論」, 『文物研究』 22, 동아시아문화연구학술재단
- 朴升圭, 2003, 「大加耶土器의 擴散과 관계망」, 『韓國考古學報』 49, 韓國考古學會
- _____, 2010, 『加耶土器 樣式 研究』, 동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朴天秀, 1996, 「대가야의 고대국가 형성」, 『석오윤용진교수정년퇴임기념논총』
- _____, 1998, 「大伽耶圈 墳墓의 編年」, 『韓國考古學報』 39, 韓國考古學會
- _____, 2006, 「대가야권의 성립과정과 형성배경」, 『토기로 보는 대가야』, 대가야박물관
- _____, 2009, 「호남 동부지역을 둘러싼 대가야와 백제-任那四縣과 己汶, 帶沙를 중심으로-」, 『韓國上古史學報』 65, 韓國上古史學會
- 배정연, 2012, 『三國時代 昌寧地域 土器文化 研究』,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宋桂鉉, 2004, 「대가야의 군사적 기반」, 『대가야의 성장과 발전』, 고령군·한국고대사학회
- 申敬澈, 2000, 「金官加耶 土器의 編年」, 『伽耶考古學論叢』 3, 伽耶文化研究所
- 안순천, 1997, 『大伽倻圈域의 縮小模型鐵製農工具 研究』,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禹枝南, 1986, 『大伽倻古墳의 編年』,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건용, 2014, 『마한·백제권 통형기대 고찰』,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동희, 2004, 「全南東部地域의 加耶系 土器와 歷史的 性格」, 『韓國上古史學報』 46, 韓國上古史學會
- _____, 2007, 「백제의 전남 동부 지역 진출의 고고학적 연구」, 『韓國考古學報』 64, 韓國考古學會
- _____, 2011, 「全南 東部地域 加耶文化의 起源과 變遷」, 『백제문화』 45,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 이성주, 2007, 「池山洞古墳群의 性格」, 『한국학연구원 학술총서』 10,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 李殷昌, 1982, 「伽耶古墳의 編年 研究」, 『韓國考古學報』 12, 韓國考古學會
- 이초롱, 2011, 『內陸樣式 古式陶質土器의 研究』,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희준, 1995, 「高靈樣式 土器 出土 古墳의 編年」, 『嶺南考古學』 15, 嶺南考古學會
- _____, 2003, 「합천댐 수몰지구 고분 자료에 의한 대가야 국가론」, 『가야 고고학의 새로운 조명』, 부산대학교
- _____, 2008, 「대가야 토기 양식 확산 재론」, 『영남학』 13,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 조성원, 2012, 「삼국시대 영남지역 도질토기 생산체계와 유통」, 『영남고고학회·구주고고학회 제10회 합동고고학대회-생산과 유통』, 영남고고학회·구주고고학회
- _____, 2013, 「토기문화로 본 삼국시대 낙동강하구의 교류양상」, 『韓國考古學報』 89, 韓國考古學會
- 趙榮濟, 1996, 「玉田古墳의 編年研究」, 『嶺南考古學』 18, 嶺南考古學會
- _____, 1997, 「玉田古墳群의 階層分化에 대한 研究」, 『嶺南考古學』 20, 嶺南考古學會
- _____, 2002, 「고고학에서 본 대가야연맹체론」, 『맹주로서의 금관가야와 대가야』, 김해시
- _____, 2006, 『西部慶南 加耶諸國의 成立에 대한 考古學的 研究』, 부산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 _____, 2007, 「中心部와 周邊部 加耶土器의 認識」, 『考古廣場』 1, 釜山考古學研究會
- _____, 2010, 「대가야식 발형기대의 상대편년」, 『부산대학교 고고학과 창설20주년 기념논문집』, 부산대학교 고고학과
- 하승철, 2001, 『伽耶西南部地域 出土 陶質土器에 대한 一考察』,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_____, 2015, 『소가야의 고고학적 연구』, 경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洪潛植, 2000, 『6~7世紀代 新羅古墳 研究』,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_____, 2001, 「고고자료로 본 가야 멸망전후의 동향」, 『韓國上古史學報』 35, 한국상고사학회
- _____, 2006, 「대가야의 문화교류」, 『우륵의 생애와 대가야의 문화』, 고령군 대가야 박물관
- 木村光一, 1984, 「高靈池山洞古墳群, 32-35, 44, 45號墳, 石室プランの變遷について」, 『歴史と構造』 12, 南山大學
- 松原隆治, 1984, 「高靈池山洞古墳群に關する-考察-陶質土器を中心として-」, 『歴史と構造』 12, 南山大學
- 定森秀夫, 1987, 「韓國慶尙北道 高靈地域出土 陶質土器の檢討」, 『岡崎敬先生退官紀念 論文集 -東アジアの考古と歴史』 上, 同朋舎
- 定森秀夫·吉井秀夫·內田好昭, 1990, 「韓國慶尙南道 晉州 水精峰2虎墳·玉峰7虎墳出土遺物」, 『가야통신』 19·20, 가야통신 편집부
- 藤井和夫, 1990, 「高靈池山洞古墳群の編年」, 『東北アジアの考古學』, 六興出版

Examination of Goryeong Style Pottery of the Three Kingdoms Period

Choi Eunbi*

Presented in this article is an examination of the pottery excavated from sites in and around Goryeong, which was the center of Daegaya in the Three Kingdoms Period. Analysis was undertaken on examples belonging to 16 types of pottery recovered from the large-scale and mid to small-scale tombs of the Goryeong region, followed by an examination of Goryeong influenced pottery from the areas surrounding the Goryeong region. Based on this, the characteristics and diachronic change of Goryeong style pottery was established.

Goryeong style pottery could be categorized into the following six temporal stages: Phase I, represented by examples recovered from Jisan-dong Tombs 73 and 75; Phase II, represented by examples recovered from Jisan-dong Tombs 32~34; Phases III & IV, represented by examples recovered from small-scale stone-lined tombs; Phase V, represented by examples recovered from Jisan-dong Tomb 44; and Phase VI, represented by examples recovered from Jisan-dong Tomb 45.

Following the establishment of pottery types and diachronic characteristics of pottery from the Goryeong region, pottery examples recovered from sites surrounding the Goryeong region were examined. They were then classified into ‘Goryeong produced examples’, ‘Goryeong influenced faithful reproductions’, and ‘Goryeong influenced imitations.’ The relative presence of these three categories was established according to region, based on which the relationship between each region and the Goryeong region was identified and classified into a ‘upper-middle-lower’ pyramid scheme.

In the final section, the way in which the distribution of Goryeong style pottery changed over time was examined. It was observed that Goryeong style pottery first appeared in the Goryeong region in the mid-fifth century, spread out during the late fifth to early sixth century, with its distribution narrowing in the mid-sixth century.

Key words : Three Kingdoms Period, Goryeong, Pottery, Daegaya, Gaya

* National Museum of Korea